

#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開戰初期에 있어서의 朝鮮側의 軍糧調達과 그 輸送

六反田 豊

I. 머리말	1) 來援明軍에 대한 대응
II. 연구의 현상과 과제	2) 義州·定州 사이에서의 군량 공급
III. 개전 초기 軍糧穀의 조달과 수송	3) 안주 이남 및 황해도에서의 군량 공급
1. 선조 25년(1592) 4월~5월	IV. 맷음말
2. 선조 25년(1592) 6월~7월	【토론녹취문】

## I. 머리말

文祿·慶長의 役(임진왜란, 1592~98) 때,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조선에서는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군량을 어떻게 조달·확보하였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목적지 까지 수송하고 있었을까. 이 전쟁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이른바 군량 공급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文祿·慶長의 役에 관한 연구는 일한 양국의 연구자에 의해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각각의 문제의식이나 시각 차이때문에, 논점을 어디에 놓았는가에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지금까지 이 전쟁의 원인·목적이나 전황의 추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전쟁을 뒷받침한 일본 사회 제 세력의 상황, 조선에서 저항의 주체를 이룬 의병 활동의 실태, 명의 원군 문제를 비롯한 조선의 대명관계, 조선 수군의 활동, 군사 시설이나 각종의 병기, 또 降倭나 피로인, 이 전쟁이 일본·조선·명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국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전쟁 기간 중의 병참·군량 문제를 논한 연구에 한정한

다면, 결코 활발한 연구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분야의 얼마 안 되는 전문 연구로서 우선, 침략측인 일본군의 군량 공급체계를 고찰한 中野等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sup>1)</sup> 여기서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지만, 中野의 연구에 의해 일본군의 군량 수송이 어떠한 제도적 체계 아래에서 실시되고 있었는지는 명확해졌다.

반면에 필자의 쟝견에 한정한다면, 일본에서 조선 측의 군량 문제를 논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로서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조선군과 援明軍에 대한 조선 정부의 군량 공급 체계의 실태 및 군량 조달책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의 해명이 시도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우선 한국에서 발표된 군량문제에 관한 주요 논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조선 측의 군량 공급체계가 어디까지 밝혀져, 어떠한 과제가 향후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 위에 개전 초기에 조선 측의 군량 조달·수송의 추이를 주로 『선조실록』의 기술에 의거하여 좀더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보자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 측의 군량 공급체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 기간 중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군량 조달·수송에 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것이 실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가, 그에 대해 각기의 전황과 정치 상황에 입각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이 전쟁의 실태를 해명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대상을 개전 초기로 한정한 이유는, 첫째로 전쟁의 전 기간을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능력적으로 무리이고, 한편 지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허를 찔려 태세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해 조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에도 하나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선조 25년(1592) 4월 전쟁 발발로부터 동년 7월에 祖承訓이 인솔하는 원명군이 평양 탈환에 실패해 퇴각할 때까지의 약 3개월 사이를 대상으로 하고 싶다.<sup>2)</sup>

1) 中野等, <朝鮮侵略戦争における海上輸送の展開について>(九州大學國史學研究室編, 『近世近代史論集』, 吉川弘文館, 東京, 1990年). 同, <朝鮮侵略戦争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第35輯, 九州大學文學部附屬九州文化史研究施設, 福岡, 1990年). 同, 『豊臣政權の大概侵略と太閤檢地』(校倉書房, 東京, 1999年) 등.

2) 본고는 2003년 9월 20일에 한국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2분과회의 일·한 합동 연구 집회에서 발표한 원고(이하, 구고로 칭함)에 당일의 논의·지적을 근거로 해 가필·수정한 것이다. 큰 수정 점은 이하와 같다.

① 보고의 내용에 걸맞은 제목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제를 「文祿·慶長의役(壬

## II. 연구의 현상과 과제

조선 정부의 군량 조달·수송 문제를 고찰한 연구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것을 직접 고찰 대상으로 한 논문 수편이 발표되고 있다.<sup>3)</sup> 그 가운데

辰倭亂) 開戰初期에 朝鮮側의 軍糧 供給體制」에서 표기와 같이 고쳤다. 또한, 구고·본고 모두,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과 거기에 동반하는 일·조·명 간의 전쟁을 일관해 「文祿·慶長의 役」이라고 칭했지만, 이것은 제2 분과회에서 정한 연구과제의 일본측 표기가 「文祿·慶長의 役(임진왜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며, 타의는 없다.

② 구고에서는 조선측의 군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3편만으로 했지만, 손승철위원의 교시에 의해 그 이외에도 몇 편의 논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뒤의 주 3 참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입수할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그것도 검토하였다. 거기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조선정부의 군량 공급책이나 그 실태를 논문의 주제로서 논한 것은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구고에서 다룬 3편의 논문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논문으로서는 구고인 채로 하며,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주에 열거해 간단한 코멘트를 첨부하는데 그쳤다.

③ 구고에서는 군량 문제에 관한 조선정부의 조치로서 문헌상에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을 선조 25년(1592) 5월 13일의 실록 기사라고 했지만, 군량관계의 기사는 그것보다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손승철위원의 지적을 받아, 재차 《선조실록》을 검토했다. 본고의 집필에 즈음해, 그 결과를 근거로 가필·수정을 실시했다.

④ 구고에서는 주된 사료로서 《선조실록》을 이용했고, 일부는 《선조실록》에 빠진 곳을 류성룡의 《징비록》으로 보충했다. 《선조실록》을 주요 사료로서 이용한 것은 報告가 취급하는 시기와 대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역시 《선조실록》이 기본 사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보고까지의 준비 기간이 짧고, 《선조실록》 이외로 당연하게 참조해야 할 제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징비록》의 본문, 동서의 《芹曝集》(卷3)과 《辰巳錄》(卷6), 朴東亮, 《寄齋日錄》 등을 이용해 《선조실록》의 미비점을 보충하였고, 구고에서는 논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했다.

이상의 가필·수정에 따라 일부 표제와 목차를 늘리고 장번호의 서체를 변경하는 등, 구성에도 약간의 수정을 더했다. 또,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잘못은 정정하였고, 세세한 자구나 표현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한 곳이 있다. 구고에서는 별첨 자료로서 지도를 첨부했지만, 이번 새롭게 2매의 지도를 제작해 그림1 및 그림2로서 본문 중에 삽입했으니, 참조를 바란다.

3) 이외에 조선측의 군량문제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孫承喆씨의 教示에 의함).

① 金弘, 《壬辰倭軍事史的研究》(慶北大學校大學院史學科博士學位論文, 大邱, 1993年)

② 金弘, <壬辰倭亂期 軍糧 調運送>(《3士校論文集》第27輯, 1988年)

③ 李章熙, <임진왜란중屯田經營에 대하여>(《東洋學》第26輯, 서울, 1996年)

여기에서는 다음의 3편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 (1) 李章熙, <壬亂中糧餉考-明兵의 軍糧調達을 中心으로->(《史叢》第15·16合輯, 高麗大學校史學會, 서울, 1971年).<sup>4)</sup>
- (2) 金鎔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壬亂 時當時를 중심으로->(《史學研究》第32號, 韓國史學會, 서울, 1981年).
- (3) 金康植, <壬辰倭亂中의 軍糧調達策과 影響>(《文化傳統論集》第4輯, 慶星大學校附設鄉土文化研究會, 釜山, 1996年).

④ 宋亮燮, <壬辰倭亂期 國家屯田設置經營>(《韓國史學報》, 서울 1999年)

⑤ 李炯錫, 《壬辰戰亂史》上·下(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서울, 1967年)

⑥ 張學根,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論議>(《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1993年)

⑦ 李錫麟, <壬辰倭亂期 李光輪鄉兵倡義活動>(《人文學志》18, 1998年)

⑧ 李樹健, <忘憂堂 郭再祐 義兵活動社會 經濟的基盤>(《南冥學研究》5, 晋州, 1996年)

⑨ 崔韶子, <임진왜란시 明의 派兵 대한 論考>(《東洋史學研究》11, 서울, 1977年)

⑩ 韓明基, <임진왜란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東洋學》29, 서울, 1999年)

⑪ 韓明基, <壬辰倭亂시기 明軍 參전의 社會·文化的 영향>(《軍史》35, 서울, 1977年)

이 중에서 조선측의 군량문제를 주제로 한 것은 ②와 ⑥이다. ②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①의 「IV. 임진왜란기의 군사운용 4. 군수운용」의 「1) 군량확보」 및 「2) 군량수송」의 항목을 발전시킨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①의 해당 항목에서는 文祿·慶長의役 전반에 걸쳐서 조선측의 군량 공급 체제의 개요가 정리되고 있지만, 전국의 추이에 걸맞은 미시적 연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한편, ⑥은 文祿의役期(1592.4~1593.12)에 초점을 맞추어, 명군에의 군량 조달에 대한 조·명의 논의의 추이를 추적하였고, 이 문제에 관한 류성룡의 활동을 밝힌 것이다. 주로 《선조실록》에 의거 하면서 미시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고찰의 중심은 명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선조 25년(1592) 12월 이후이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간략한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 또, 사료 해석의 면에서 의문인 점도 있다.

그밖에 ③④가 고찰 대상으로 한 둔전의 문제도 군량조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③④ 모두 어디까지나 둔전경영 그 자체에 중점이 놓여져 있어 군량 공급 문제를 직접 정면에서 논한 연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 외의 논문은 모두 군량 문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주제는 아니다. 덧붙여 ③은 「둔전 경영의 실태」라고 제목을 고쳐 이 장회의 《임진왜란사연구》(아세아문화사, 서울, 1999년)에 수록되고 있다. ⑩⑪도 각각 「명군 參전과 정치적 영향」, 「명군 參전의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서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서울, 1999년)에 수록되고 있다.

4) 동 논문은 후에 <糧餉調達의 實相>이라고 개명하여 李章熙, 앞의 논문 《壬辰倭亂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99年)에 수록했다. 본 보고에서는 이것을 참조했다.

이들 중에 가장 빨리 발표된 (1)의 논문은 부제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원명군에 대한 조선측의 군량 조달책을 논한 것이다.

필자인 이장희에 의하면, 명군이 오기 이전에 조선 국내의 군량 조달에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선조 25년(1592) 12월에 명으로부터 다수의 원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일변했다. 그 때까지 조선 정부는 군량 부족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숙련된 병력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명군이 온 이후 그들에게 제공하는 군량 조달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원명군의 군량 공급에 관한 조선측의 부담은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명군이 중국으로부터 의주까지 지참한 군량(明穀, 明糧)을 명군의 진군에 따라 조선 국내 각지에 수송하는 부담이며, 다른 하나는 명군에 공급하는 군량 그 자체를 조선 국내에서 조달하는 부담이다.

이장희는 그 각각에 대해 고찰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①明穀 수송에는 의병이나 義僧軍까지도 동원되었고, ②육로·해로 모두 그 수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송 도중에 다량의 손실이 생기고 있으며, ③수송 능력에 한계가 있어 明穀의 대부분이 수송 도중에 지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조선 국내에서 조달되는 군량은 조선 관군보다 원명군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었고, 조달 방법에는 田稅穀과 貢物作米, 奴婢身貢作米, 募粟, 貿穀, 屯田所出의 5가지가 있었다고 하며, 명군에의 군량은 가까스로 조달할 수 있었으나, 조선 관군은 군량의 결핍으로 붕괴했다고 말한다.

또 그는 군량 결핍이 전국에 미친 영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군량이 부족하였고, 게다가 적시에 명군에게 조달·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군 장수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기피의 구실을 주게 되었다. 둘째, 당초 조선 정부는 일·명간의 강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국내의 양곡이 탕진되어 백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조선 중심의 상당수는 진행 중인 강화 교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셋째, 전쟁 말기가 되면, 군량 부족에 따라 조선 관군은 해산 상태가 되었다는 등의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군량 조달을 위한 募粟官의 횡포와 일관성 없는 조선 정부의 실책이 전란 중에 빈발한 민중 반란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 降倭를 이용해 여진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국방 계획이 糧餉의 결핍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의 논문은, 文祿·慶長의 役에서 조선측의 군량 공급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취급한 연구의 효시이며, 특히 원명군의 군량 공급이 조선의 관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 의해 원명군의 대한 군량 공급에 대한 대체로의 동향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의 추이에 따라 조선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어 그것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점을 금후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군량 조달을 위한 각종 방법에 대해서도 한층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군량 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송 방식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그 외에 인용 사료의 선택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주장의 일부에 대해 명확한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에 (2)의 金鎔坤 논문은 조선시대 군량 조달과 수송에 관한 그의 일련의 연구<sup>5)</sup> 중의 하나이며, 文祿·慶長의役에서 조선 정부의 군량 공급체계의 내용과 그 추이를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는 우선 예비 작업으로서 전쟁 직전 조선의 국가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당시의 국가재정은 전쟁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지적한다. 그 위에 전쟁 기간 중의 군량 조달과 수송의 실태를, 크게 제1기(1592.4~1593.9), 제2기(1593.10~1596.8), 제3기(1596.10~1598.12)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참고로 제1기는 선조가 한성으로부터 의주로 옮겨, 이어서 일·명간의 강화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일·명 양군이 일부 병력만을 조선에 남겨두고 철수할 때까지의 시기, 제2기는 선조가 한성에 돌아와 경상도 남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투가 없었던 잠정적인 소강기, 제3기는 일·명간의 강화교섭이 결렬되어 일·명 양군이 재차 조선에 온 이후부터 일본군이 철수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각 시기 모두 조선 정부의 군량 조달·수송 정책의 추이가 시기에 따라 상세하게 논해지고 있으며, 논점도 다방면에 걸치고 있다. 그것을 짧게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그의 정리에 의거해 극히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개전 당초의 군량 확보의 목적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주둔 병사의 군량 조달과 적을 공격할 때에 필요한 行糧이나 기병에게 부수되는 馬料 등을 자체 없이 신속히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선조 25년(1592) 12월에 원명군이 의주에 도착한 후, 그들

5) 이외에 金鎔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韓國史論》 7,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80年). 同,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輸送-宣祖~顯宗年間을 중심으로->(《韓國史論史》 9,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81年)가 있다.

에게 공급하는 군량의 조달에도 부심 했다. 조선은 명군의 군량은 명 본국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명으로부터 군량이 육로·수로에 의해 의주·평양 등에 도착했지만, 선조 26년(1593) 1월 이후, 이러한 明糧 수송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수송체계가 정비되는 한편, 조·명 양군의 군량으로서 충청·전라 양도의 田稅穀이 활용되었다.

평양 탈환 시까지 모색된 군량 조달책으로서 평안도 내의 제읍에 비축된 양곡을 의주·평양간의 직로 연도에 있는 각 읍에 수송하는 것, 募粟·貿米에 의해 군량을 확보하는 것, 충청·전라 양도의 田稅穀을 해로로 수송하는 것, 明糧을 의주 등에 수송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2기】 이 시기가 되면, 전란으로 민중이 逃散하여 田地도 災害해졌기 때문에 田稅穀에 의존하는 군량 조달은 곤란해졌고, 군량 수송도 조·명 양군의 주둔지역이 확대된 결과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육상 운송보다 수운이 활용되었지만, 그것은 ① 明糧을 登萊州로부터 金州를 거쳐 의주 또는 평양에 수송할 때, ②의주에서 광양, 강화, 그리고 그 이남에 군량을 수송할 때, 더욱이 ③충청·전라 양도의 田稅穀을 경상도에 수송할 때 등에 이용되었다.

한편, 明糧을 요양으로부터 의주에 수송하는 경우에는 육상 운송에 의지했다. 의주 이남으로의 明糧 수송도 일부는 육상 운송이 활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육상운송으로부터 수운으로 전환되는 경향에 있었다. 다만, 수송 거리의 확대에 따라 수송에 종사한 황해도 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군량 조달책으로서 평양 탈환 시까지 이용된 방책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답습되었지만, 募粟으로부터 貢物作米로 그 비중은 옮겨 갔다. 선조 27년(1594) 이후는 屯田과 魚鹽貿米도 행해졌다.

【제3기】 선조 30년(1597)의 일본군 침침 이후에도 그 이전의 군량 조달·수송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다만, 이 시기가 되면 원명군의 증가에 따라 山東糧의 移運이 강조되어 실시되었다. 한편, 이미 조선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군량은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선조 31년(1598), 조·명 양군이 전라·경상 양도에 할거하는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東路·中路·西路·海路의 네 길로부터 총공격을 피는 작전을 세우게 되면서 군량 조달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선 정부는 전라·경상 양도의 田稅穀을 本道에 유치해 군량에 충당함과 동시에, 새롭게 槽船을 준비해 의주의 明糧을 한성과 전라·경상 양도에 수송했다.

그 방법은 이전과 마찬 가지로 우선 광양에서 강화로 수송하고, 그 일부는 한성을 거쳐 충주로 수송하여 경상도의 군량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를 강화로부터 은진·전주·나주 등에 수송하여 전라도 및 수군의 군량으로 삼았다. 이외에 명은 부족한 군량의 보충을 위해 銀兩과 青藍布를 본국에서 발송했다.

이 논문에 의해 文祿·慶長의役 전 기간 중에 조선 정부의 군량 공급체제의 개요는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좋으며, 이 점이 이 논문의 최대의 성과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문의 성격상 논점이 다방면에 걸치고 있어 다소 서술이 산만한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전쟁의 전 기간을 총망라하여 논하기에는 분량적인 면에서 짧고, 때문에 미시적인 분석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듈다.

마지막에 (3)의 논문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 논문의 필자인 김강식은 文祿·慶長의役에서 군량 공급체제를 논한 기존의 연구(상기 논문 (1)과 (2)의 논문)에 대해 조선 관군과 원명군의 군량 조달책을 단순하게 시기의 전후에 따라 검토했을 뿐, 군량 조달에 의해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고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①연구의 대상이 조선 관군과 원명군의 군량 조달에 한정되어 일본군의 군량 조달이 거의 주목받지 않았고, ②전쟁기의 군량 조달 문제가 가져온 정확한 실상과 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③조선 국내에서 일본군의 군량 조달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한다. (3)의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현상을 근거로 해 文祿·慶長의役에서 군량 조달 문제가 전란 중의 의병 운동과 이후의 민중 반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김강식은 우선, 조선군·일본군·명군 각각의 군량 조달책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중 조선군의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관군의 군량 조달과 의병의 군량 조달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특히 조선 정부에 의한 납속책의 추이에 주목하여 납속책이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 신분 계층의 변화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강조한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병 군량 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몇 개의 실제례를 제시하면서 소개하고, 그것들이 모두 중앙 권력이나 지방관의 군현 통치 방식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군의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일본군은 일본 내에서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군량의 현지 조달을 의도하고 있었지만, 그 가혹한 수탈이 민중에게 저항을 일으키게 하여 패전을 스스로 부르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명군의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명군의 군량은 그들이 본국으로부터 지참한 것과 조선 국내에서 직접 조달한 것이 있는데, 조선측은 각종의 지원책을 통해서 명군의 군량 조달과 수송에 노력했지만, 糧餉의 확보는 극히 어려웠다고 한다. 명군의 군량 조달은 모두 조선 민중의 부담이 되었고, 그것이 의병 운동이나 반란 운동이라는 민중의 적극적인 참가로 연결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 근거하여 이어서 김양식은 군량 조달책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전쟁 중에 발생한 조선 국내의 반란이다. 이러한 반란은 관료에 의한 수탈이나 횡포, 민중의 식량난이나 생활고와 함께 군량의 수송과 징수의 가혹함, 특히 일본군과 명군의 군량 현지조달의 가혹함을 원인으로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서 송유진의 난(1593-94)과 이몽학의 난(1596)을 소개하여, 이 두 건의 반란은 모두 신분 제도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하층민이 전란을 틈타 일으킨 것으로 반란군 구성원의 대부분은 피지배층에 속하는 하층민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반란의 주모자에 의병장이 가담하고 있던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반란은 의병의 해체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발생한 것이었다고 논한다.

요컨대, (3)의 논문의 주제는 文祿·慶長의 役에서 조선군·일본군·명군의 군량 조달책 그 자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그것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확실하게 그가 말하고 있듯이 (1)과 (2)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군량 조달·수송 정책 및 그 실태의 해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또, 분석의 어딘가에 부족함은 느끼지만, 한국인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일본군 군량 조달에 주목한 점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부터 생각한다면, (3)의 논문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군량 조달책의 가혹함이 조선 국내에서 민중 반란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결론 자체는, 벌써 (1)의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던 것이며, 특별한 새로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3)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것은募粟에 의한 賞職이나 免賤의 조치가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점(민중 반란을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하는 논점)과 의병의 성격 변화 내지는 그 해체와 민중 반란을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주장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외 사료 해석상의 의문점도 몇 개인가 지적할 수 있다.

이상, 文祿·慶長의 役에서 조선측의 군량 문제를 논한 3편의 논문을 소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전쟁 기간 중, 조선 정부가 어떻게 군량을 조달·확보하여 그것을 어떻게 조선 관군이나 원명군에게 지급하고 있었는지, 그 개괄적인 내용과 시기적 추이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요 내지는 大略圖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측의 군량 공급체계의 특징이나 그 사회적 영향 등을 보다 명료한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햇수로 7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의 전쟁 중에 조선 정부는 때때로의 전황이나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군량의 조달이나 수송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것을 실제의 정책에 반영시켜 갔을 것이다. 주어진 선택사항 속에서 조선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판단을 실시하여 전쟁을 수행해 간 것일까. 혹은 군량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조달이나 수송을 위한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하였고, 군량 조달·수송 작업의 지휘·감독체계는 어떠하였을까. 이러한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보다 미시적인 시점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시간적인 면에서의 미시적 연구이다.

그것과 병행해 공간적인 면에서의 미시적 연구도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레벨에서 군량 공급의 문제를 논하고 있어 (3)의 논문이 의병 부대의 군량 조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각 지역이나 부대마다 각각 어떠한 군량 공급체계가 취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전선 부대의 지휘관이나 의병장이 자신의 부대를 위해서 어떻게 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개별적인 사례 연구를 축적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편, 다음에서는 개전 초기에 조선 정부의 군량조달·수송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 말한 과제 가운데 전자, 즉 시간적인 면에서의 미시적 연구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준비 기간의 관계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상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군의 위협에 임하여 조선 정부는 어떻게 군량 문제를 처리해 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I. 개전 초기 軍糧穀의 조달과 수송

#### 1. 선조 25년(1592) 4월~5월 (개전부터 임진강 전투 폐배 후까지)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일본군의 제일진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文祿·慶長의役이 시작되었다.<sup>6)</sup>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해 점차 한성으로 진격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평양으로 피난하여 명에 구원을 청할 것을 결정하고,<sup>7)</sup> 4월 30일,

6) 『선조실록』 권26, 25년 4월 임인(13일)조.

7)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4월 「是月二十九日夕」조.

선조는 고관들과 함께 한성을 탈출했다.<sup>8)</sup> 그리고 개성을 거쳐<sup>9)</sup> 5월 6일에는 황주에 까지 이르렀다.<sup>10)</sup> 文祿의役 개전 후, 선조와 신하와의 사이에 군량 문제가 논의된 것은 좁은 식견에 의하면, 이 때가 최초이다.<sup>11)</sup>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A1. 上引見黃海監司趙仁得, (中略) 上曰, 平壤無絕糧之憂乎, 仁得曰, 此道亦有軍糧, 已爲運送矣, (後略)(《宣祖實錄》卷26, 25年 5月 乙丑[6日]條)

A2. 引見崔興源·尹斗壽等, (中略) 上曰, 土兵當帶去, 但何以爲糧, 斗壽曰, 自三縣, 紿二十日糧矣, (後略)(《宣祖實錄》卷26, 25年 5月 乙丑[6日]條)

우선 사료 A1을 보면, 피난처인 평양의 양곡 비축 상황에 염려를 나타낸 선조에 대해서 황해도 관찰사 조인득은 이미 「此道」, 즉 황해도의 군량을 평양에 수송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황해도 穀의 평양 이송은 조인득의 독단에 의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 때 조신들의 사이에서 넓게 군량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선조는 「本道土兵」(황해도 재지의 군사를 가리키고 있은 것인가?)의 지휘관 인선을 둘러싸고 영의정 최홍원·좌의정 윤두수<sup>12)</sup> 등과 협의했다.<sup>13)</sup> 그 때에 윤

8) 《선조실록》 권26, 25년 4월 무오(29일) · 기미(30일)조.

9)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신유(2일) · 임술(3일)조.

10)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을축(6일)조.

11)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갑신(1일)조에는 「豐德郡守李隨亨, 謁於道左, 稍備御膳, 百官亦得食, 下至軍糧·馬料, 亦皆措備, 別獻米五石, 上卽分賜從行衛卒, 夕次開城府」라고 있는데, 「軍糧」의 문자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선조 일행이 피난 가다가 풍덕군에 이르렀을 때, 同郡의 군수 李隨亨이 선조 일행에게 供應했던 사실을 전하는 것이며, 조선정부의 군량공급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12) 崔興源과 尹斗壽는 宣祖25년(1592) 5월 2일에 각기 영의정·좌의정에 임명되었다. 《宣祖實錄》卷26, 25年 5月 辛酉(2日)조.

13)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을축(6일)조. 약간 장문의 인용이지만, 사료A2로서 본문 중에 인용한 부분도 포함하여 기사전문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引見崔興源·尹斗壽等, 上曰, 卽等見僉泓上疏乎, 開城離發, 豈予之所爲乎, 興源曰, 賊兵入城三日, 而其後未聞攻戰之言, 都元帥所報, 亦不明白, 羣議則皆言本道土兵精銳, 欲定將, 称以都巡察之号遣之矣, 上曰, 當送何人, 興源曰, 無人, 斗壽曰, 李潤德, 上曰, 申硤不可爲乎, 將不良, 則兵散矣, 全羅之兵, 何不入援, 斗壽曰, 沈岱旣以徵兵下去, 但道路不通云, 李薦·趙誼·金毅一, 皆驍健, 大將則欲以韓念寅爲之, 忺寅年少, 勝於都元帥, 而都元帥, 方率大軍, 易將爲難, 上曰, 不可以孤軍深入, 不得已發全羅兵乃可, 斗壽曰, 下書招之爲當, 上曰, 定死乎, 興源曰, 或言不死云, 斗壽曰, 當罪之, 兵使則以金誠一或朴晉爲之可也, 上曰, 右兵使, 誰可爲乎, 斗壽曰, 曹大坤可也, 上曰, 土兵當帶去, 但何以爲糧, 斗壽曰, 自三縣, 紿二十日糧矣, 韓念寅, 則稱都巡察使, 趙誼等則陞堂上遣之, 上曰, 何難, 斗壽曰, 昔者, 光廟來此,

두수와의 사이에 주고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료 A2이다. 선조가 「本道土兵」이 휴대하는 군량의 준비에 대해 물어보자 윤두수는 「三縣」의 양곡 중에서 20일분의 군량을 지급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三縣」이 구체적으로 어느 읍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불명하다.<sup>14)</sup> 또, 이 때 조직된 「本道土兵」은 일본군의 임진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同地에 파견된 것으로 보여지지만,<sup>15)</sup> 임진강에 집결한 조선 관군의 군량으로서 5월 20일 시점에서는 金谷倉의 稅穀 활용이 논의되고 있었으며(후술사료 C), 실제로 「土兵」에 대해서 「三縣」곡으로부터 군량이 지급되었는지 어떤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선조와 윤두수와의 교환된 말은 매우 간단한 것이며 이것을 조선 관군의 군량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선조일행이 당면의 피난처인 평양에 들어간 것은 다음 5월 7일이었다.<sup>16)</sup> 그리고 이후, 조선 정부내에서는 조선 관군에게로의 군량 공급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지게 된다. 우선, 다음의 기록을 보자.

B. 備邊司啓曰, (中略)牙山倉漕運, 亦令黃海監司, 指送于西海海路, 上從之(《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임신(13일)조)  
평양에 행재를 정한 수일 후인 5월 13일 비변사는 이 날 황해도 관찰사(조인득)에

---

多取土, 今亦當取土, 忠元曰, 軍卒等, 皆赴戰, 赴舉者必少矣, 上曰, 預爲通諭, 使興起其心也, 上以李尙毅持來書狀, 示于大臣曰, 此報又如此, 此亦不能守矣, 權徵又以爲不能守云, 奈何, 忠元曰, 使藏兵臨津等處, 令賊不得渡, 則幸矣, 上曰, 申砧在臨津乎, 斗壽曰, 申砧則有前進之計, 金汝暉亦將往云, 上曰, 大概今日所言主意, 遣韓念寅事乎, 興源曰, 本道土兵, 巡察使當領去, 故如是啓之矣, 上曰, 依此爲之, 且江邊土兵幾何, 斗壽曰, 八百餘名, 上曰, 軍器火砲, 則何出, 斗壽曰, 持來矣, 上曰, 此處扈衛, 則何以爲之, 斗壽曰, 本道兵二千餘人矣. 이 기사의 전반 부분에 「本道土兵」을 지휘하는 「都巡察」使를 임명해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어 그 적임자로서 한옹인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한옹인은 도순찰사에 임명되었고, 마찬가지로 이때에 방어사에 임명된 이천과 함께 임진강으로 향해 그 지역에 체재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수어사 신립을 보좌하도록 명해지고 있었다. 朴東亮, 《寄齋史草》下, 壬辰日錄1, 壬辰 5月 初8日條. 또한 《寄齋史草》의 해당 조에는 「諸道都巡御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선조실록》에는 상기 기사도 포함해 「도순찰사」로 일관하고 있어 이쪽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1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조일행이 평양에 행궁을 마련한 후에 「三縣」의 양곡을 군량으로서 활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자주 있었다. 이 경우의 「三縣」은 평양 부근의 용강·강서·함종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료 A2에 보이는 「三縣」이 이러한 읍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떤지는 결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불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15) 주 13에 인용한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을축(6일)조의 후반 부분을 참조.

16)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병인(7일)조.

게 명하여 牙山倉의 조운 선단을 서해 해로에 진행시킬 것을 청해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

아산창은 충청도 아산의 아산만 연안에 설치되어 있던 潛倉으로 본래는 貢稅串倉이라고 하여 매년 도내 연해부 40읍의 田稅穀이 이 조창으로 징세되어,<sup>17)</sup> 해로를 통해 한성으로 운송되고 있었다.<sup>18)</sup> 5월이라는 것은 조운 시기로서 약간 늦지만,<sup>19)</sup> 이 때 아산창으로부터의 조운 선단은 한반도의 서해안 바다를 항해 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조운 선단을 서해 항로로 이용해 보낸다는 것은 아산창의 전세곡을 행궁이 있던 평양에 수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조운선단에는 田稅米 1,200석이 실려 있었다(후술 사료 P). 이것을 행궁에 옮기는 것으로 행궁에서 제 경비의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군량으로서도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평양에는 조인득에 의해 이미 황해도곡이 이송되어 있었을 터이지만(사료A1),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조의 평양 체제 중에 이 전세곡은 행궁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산창의 전세곡은 이윽고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된다(후술 사료 PQ1Q2).

그 다음에 5월 20일 선조는 대신과 비변사·병조의 당상관 등을 접견하여 북상을 계속하는 일본군 요격을 위한 군량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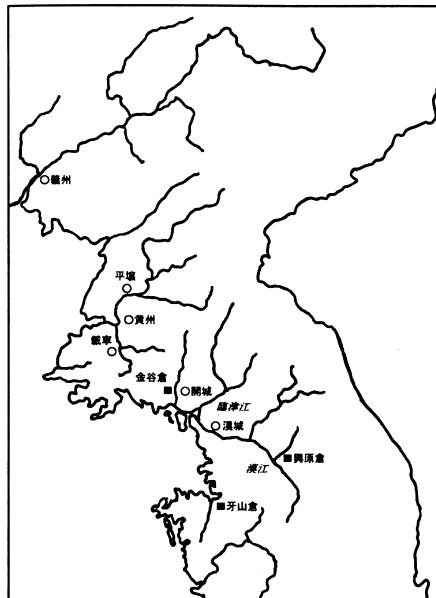
C. 上引見大臣・備辺司・兵曹堂上, 承旨盧稷・注書朴鼎賢・仮注書韓禹臣・翰林金善餘・金義元同入侍, 上曰, 如有所欲言, 皆言之, 尹斗壽曰, 韓應寅, 十日出去, 精兵連續而往, 今聞, 十八日渡江云, 今日間當舉事, 東邊捕倭事, 元帥已知, 士氣必增, 可望成功, 上曰, 成功与否, 未可預料, 更無措置事乎, 軍糧何以爲之, 此非二三日所決, 曠日持久, 則軍糧當汲汲措置, 仍問臨津兵幾何, 斗壽曰, 万餘, (中略) 上曰, 金谷倉在何處, 崔興源曰, 在江陰, 常留田稅, 時存二千石矣, 興源又曰, 以日計之, 昨日·今日必爲舉事, 自此蕩平則幸矣,(中略) 沈忠謙曰, 賊窮蹙迫死, 則棄劍乞降云, 上曰, 此賊之性不然, 乞降之言, 未可信也, 軍糧措置, 若有未盡, 更爲議啓, 今日之事, 無有大於此者, 臨津之軍, 已爲渡江乎, 誠中曰, 狀啓陪持人言, 已渡云, 上曰, 濟灘皆守之乎, 昨聞澄波渡, 無一人守之, 甚虛疎矣, 李德馨曰, 渡大灘後, 渡澄波渡, 想其處軍皆聚于臨津矣, 上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忠淸道牙山縣倉庫貢稅串倉條.

18) 六反田豊, <李朝初期の田稅輸送体制-各道単位にみたその整備·変遷過程->(《朝鮮學報》 第123輯, 朝鮮學會, 天理, 1987年), 100-121쪽.

19) 《各司受敎》의 戶曹受敎에는 「癸亥」, 즉 명종 18년(1563) 2월 17일의 戶曹啓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기에는 「今後各道田稅乙, 依大典開倉捧上, 法聖·群山·牙山等倉田稅乙, 翼年三月內畢漕運不得爲自去等, 捧上差使員乙, 勿揀赦前罷出爲自乎矣」라고 기록되어 있다.

曰, 大灘亦舟渡乎, 德馨曰, 霖雨如此, 不得徒涉, 上曰, 軍糧外, 他無舉行事乎, 金谷倉米, 可支二十日云, 二十日安可期其畢事乎, 盧稷曰, 軍事遲速, 未可預料, 上曰, 次次輸轉, 恐不及用云, 此外他無可措置乎, (後略)(《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기묘(20일) 至)



&lt;圖 1&gt;

사료 C의 윤두수의 발언 중에 「한옹인, 10일 출거」라고 있는데, 한옹인은 5월 6일에 諸道巡察使에 임명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때 防禦使에 임명된 이천과 함께 도원수 김명원의 보좌를 하명 받았기 때문에,<sup>20)</sup> 「10일 출거」라는 것은 그 임무를 위해 그가 전선에 있는 김명원에게로 출발한 것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조선정부는 임진강 바로 앞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반격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 때 朝議에서는 조선 관군의 반격에 필요한 군량으로서 金谷倉 소장의 전세곡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금곡창은 사료C에서는 黃海도 江陰 소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隣邑이었던

20)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을축(6일)조.

白川의 예성강변에 있던 潟倉으로 부근 12읍의 전세곡을 수납하고 있었다.<sup>21)</sup> 그러한 전세곡은 여기서부터 예성강·한강의 하천 수로를 따라 한성까지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sup>22)</sup> 사료C에 의하면, 당시 이 조창에는 2,000석의 稅穀이 있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조운의 기간을 지나고 있으므로, 이것은 조창에 남아 있던 稅穀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아무튼 이 금곡창의 2,000석을 가지고 임진강변에 집결한 조선군 병사 1만 명 20일 분의 군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량 확보에 불안을 일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며, 조선 정부에 군량 문제는 개전 당초부터 큰 현안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평양의 행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朝議가 행해졌던 2일 전인 18일, 실은 임진강에서는 이미 일·조 양군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조선측은 대패를 당하고 있었다.<sup>23)</sup> 아마, 그 보고를 받은 후의 일이겠지만, 앞서 말한 朝議로부터 3일 후인 5월 23일, 평양의 행궁에서 병력의 재건과 군량 확보에 대한 방책이 다시 논의되었다.

- D. 上引見大臣崔興源·尹斗壽·右贊成崔滉·礼曹判書尹根壽·戶曹判書韓準·兵曹判書金念南·大司憲李恒福·同知李誠中·副提學沈忠謙·大司諫鄭岷壽·同知李德馨·兵曹參判李挺立·參議黃暹·參知鄭士偉·承旨柳根·注書朴鼎賢·仮注書韓禹臣·翰林金善餘·金義元等, 上曰, 賊事何如, 崔興源曰, 臨津敗後, 軍卒散亡, 土兵五百, 初不與戰, 申硤所率, 亦多聚會, 方招集餘軍, 更爲舉事云, 南兵使又當來到, 先送三千五百, 最是精卒, 臨津敗軍, 雖未及齊到, 豈盡死乎, 劉克良·金汝暉, 則不知去處云, 斗壽曰, 觀其形勢, 兵連不解, 運糧甚難, 聞載寧屯田所儲二萬石云, 可以用, 興源曰, 金谷倉穀, 方取用云, 牙山倉穀, 亦欲取來, 而道路不通, 今始定軍輸來, (中略) 興源曰, 李渾之兵, 亦當來會, 今日最可憂者軍糧, 而開城米四百餘石, 籍田穀千餘石, 此皆可用, 金谷倉, 亦當繼用, 牙山倉, 今欲輸運, 興原倉亦有二千餘石, 大概倉穀, 雖存而輸運爲難, 三江人, 多聚船, 昨令尹湛往將之矣, 上曰, 賊奪此船, 則奈何, 興源曰, 避賊之人, 載其妻子, 必盡力防之, (後略)(《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임오(23일)조)

사료 D에 의하면, 朝議의 석상에서 윤두수는 黃海도 載寧 소재의 둔전에서 수확된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黃海道白川縣倉庫金谷浦倉條. 참고로 江陰에는 助邑浦倉이 있었으며, 부근 12읍의 田稅穀을 수납하고 있었다(同書, 권43, 黃海道江陰縣倉庫助邑浦倉條). 이때의 朝議에서는 助邑浦倉의 田稅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재고의 곡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22) 六反田農, 앞의 논문, 122-124쪽.

23)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조.

20,000석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또 최홍원은 금곡창과 아산창의 전세곡 이외에 개성의 米 400여석과 稷田穀 1,000여석, 더욱이 강원도 원주 소재의 조창인 興原倉<sup>24)</sup>의 전세곡 2,000여석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자 모두가 이러한 官穀에 대한 수송 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최홍원은 그 대책으로서 「三江」(漢江·龍山江·西江<sup>25)</sup>)의 사선을 이용해 수송을 실시해, 尹湛이라는 인물을 파견하여 그것을 감독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관곡의 수송이 행궁이 있던 평양으로의 수송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 관군이 있는 전선으로의 수송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료 D만으로는 판명할 수 없다. 여기서 류성룡의 《懲毖錄》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E. 始車駕至平壤, 還議皆以糧餉爲憂, 盡取列邑田稅, 輸到平壤, 及城陷, 幷本倉穀十餘萬石, 皆爲賊所有, (《정비록》 권1)

이 기술로부터 판단하면, 각지의 전세곡은 모두 평양에 수송된 것 같다. 그 액이 평양의 官穀을 포함해 10여만 석에 이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료 D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꽤 많은 읍의 전세곡이 평양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에서는 개전 후 약 1개월이 지나 평양에 피난한 후에 간신히 군량의 조달과 수송을 위한 대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우선, 행궁에서의 제 경비에 대한 재원과 군량 확보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졌고, 때마침 潛運 도중에 있던 충청도 아산창의 전세곡을 이에 충당할 것이 하명되었다. 그러나 이 전세곡이 평양에 당지도 않았는데, 선조 일행은 한층 더 북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북상하는 일본군에 대한 반격과 요격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황해도·강원도의 潛倉穀과 둔전의 수확물 등이 군량으로서 활용하게 되었다. 군량의 조달처나 조달액은 차츰 확대·증가하는 경향에 있었고, 조선 정부에 의한 군량 조달 활동은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江原道原州牧倉庫興原倉條에 의하면, 이 조창은 한강의 지류인 蠻江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 5읍의 田稅穀을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옮겨진 田稅穀은 蠻江·漢江의 하천 수로를 따라 한성까지 운송되고 있었다(六反田豐, 앞의 논문, 125-134쪽).

25) 高東煥에 의하면, 「三江」이라는 것은 漢江·龍山江·西江의 총칭으로 南山 남쪽 일대부터 노량진까지를 한강, 그 서쪽에서 마포까지를 용산강, 마포의 서쪽에서 楊花津까지를 서강이라고 한다(高東煥,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知識產業社, 서울, 1998年), 217-218쪽).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선조실록》의 기사만으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면의 필요한 군량 확보에는 전망이 보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송에 당면해서는 전란으로 인해 도로가 불통되었다는 점도 있어, 많은 곤란을 동반하여 「三江」私船의 활용 등이 시도되기도 했다. 여하튼 최종적으로 10여 만석의 군량이 평양으로 集積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군량 문제를 둘러싼 사건으로서 전술한 것 이외에 평양 피난 후인 5월 23일, 평안도 价川의 富民이 4,000석의 곡물을 관에 납부해 포상으로서 당상관 實職을 수여받았다는 사실<sup>26)</sup>이 주목된다. 지방의 富民에게 곡물의 공출을 요구해, 그 상으로서 관직을 수여하거나 免賤 등의 혜택을 베풀거나 하는 이른바 募粟은 후에 활발하게 행해졌지만, 价川縣의 사례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5월 25일에는 압록강의 강변지대에서 징병한 「江邊土兵」에게 그들을 慰撫하기 위해서 酒肉綿布가 지급된 것으로 인해 평안 도내의 관군 병사에 대해서도 도내의 전세곡과 관창 소재의 米·太가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이 시점에서는 평안 도내의 備蓄穀에는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 2. 선조 25년(1592) 6월~7월

(명군의 來援에서부터 明將 조승훈의 평양 탈환 실패까지)

### 1) 來援明軍에 대한 대응

임진강 전투에 승리한 일본군은 5월 27일부터 28일에 걸쳐 임진강을 건너, 29일에는 개성을 함락시켰다.<sup>28)</sup> 6월 8일에는 평양을 바라보는 대동강 기슭에까지 다가와,<sup>29)</sup> 다음 9일에 조선측에 강화를 요구했다.<sup>30)</sup> 그러나, 대동강 기슭에서 같은 날 열린 일·조 간의 강화 회담이 결렬되어,<sup>31)</sup> 10일에 일본군이 대동강 동쪽 기슭에 진을 치자,<sup>32)</sup> 다음

26)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임오(23일)조. 「价川富民李春蘭, 前後納穀四千石, 備辯司, 請除堂上實職, 以聳動道內富民, 上從之.」

27)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갑신(25일)條. 「本道都巡察使李元翼馳報云, 各官徵兵, 聚待已久, 令各其官繼餉, 而道路遼遠, 餓餓者多, 備辯司以爲, 江辺土兵, 則酒肉綿布, 以示優恤之意, 獨於内地之兵, 有同越視, 請令戶曹俵給田稅或倉儲米太, 上從之.」

28)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 東京, 1995年), 63-64쪽.

29)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병신(8일)조.

30)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정유(9일)조.

11일에 선조 일행은 평양으로부터 한층 더 북방의 영변으로 피해 일본군의 움직임에 따라 명과 국경을 접한 의주까지 피난하기로 하였다.<sup>33)</sup> 한편, 일본군은 15일, 無人이 된 평양성에 입성했지만,<sup>34)</sup> 전술 사료 E에 의하면, 조선 정부가 평안 도내의 각 읍으로부터 평양으로 모아 온 군량은 전부 그대로 일본군의 것이 되어 버렸다.

한편, 평양 함락 직전인 6월 13일, 명의 遼東鎮撫가 파견한 林世祿이 평안도 安州에 도착해 조선 구원의 의향을 조선측에 전했다.<sup>35)</sup> 더욱이 그 다음날에는 의주에 있던 海平府院君 윤근수에게 명군은 恩賜犒軍銀 2만 냥을 부여하였고, 윤근수는 영변에 머물고 있던 선조에게 명군의 압록강 도강을 보고했다.<sup>36)</sup> 선조는 윤두수를 통해 이것을 조선의 제군에 전달하고, 清川江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 명군의 來援을 기다리도록 명했다.<sup>37)</sup>

이렇게 하여 6월 15일부터 19일에 걸쳐, 參將 戴朝弁 · 遊擊 史儒 · 參將 郭夢徵 · 遊擊 王守官 · 副總兵 祖承訓 등 요동 지방의 명군 부대가 연달아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 왔다.<sup>38)</sup> 이 사이에 18일에는 평안도 선천의 林畔館에 도착한 사유 · 괴몽징 등과 조선측과의 사이에 군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생겨 사유 · 괴몽징 등이 일단 의주로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했지만,<sup>39)</sup> 24일, 괴몽징은 의주의 龍灣館에서 선조의 행례를 받아 皇賜銀 2만 냥을 가져와 명군 來援을 전했다.<sup>40)</sup>

명군의 조선 구원이 결정되어 조선측의 군량공급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接明軍에 공급하기 위한 군량 조달이 큰 현안이 되어 조선 정부는 그를 위한 대책에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이미 6월 1일 단계에서 명군에의 접대 · 공옹을 위해 沈喜壽를 접대사로 임명하고 의주로 파견하였으며, 동시에 洪宗祿 · 洪世恭 · 沈友勝 등 3명을 三路調度使로 임명하여 명군에게 공급할 군량을 관할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sup>41)</sup> 원명군의 군량공급문제에 관한 조선 정부의

31)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정유(9일)조.

32) 北島万次, 앞의 책, 66쪽.

33)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기해(11일)조.

34)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묘(15일)조.

35)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임인(14일)조.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조.

36)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임인(14일)조.

37)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임인(14일)조.

38)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갑진(16일) · 을사(17일) · 병오(18일) · 정미(19일)조.

39)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병오(18일)조.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조.

40)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임자(24일)조.

41)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2. 壬辰 6月 初1日 己丑條에는 「尹斗壽, 旣已請兵於天朝, 凡接濟之策, 不可不先爲講究, 遂以沈喜壽爲接待使, 先往義州, 又以洪宗祿 · 洪世恭 · 沈友勝爲三路調度使, 分管糧餉」이라고 있으며,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조에도 「分遣調度

논의는 명군의 압록강 도강이 시작된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F1. 豊原府院君柳成龍, 自平壤入朝, (中略) 成龍曰, 若天兵到定州, 則當有犒軍之事, 安州已出米二十餘石, 使之釀酒, 且備牛豕以待矣, 五百石, 乃五千名十五日糧, 各州各府, 各給三日糧則可, (中略) 成龍曰, 軍糧不得已預備可也, 平壤則有四萬餘石, 若及到平壤, 則無患矣, (後略)(《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묘(15일)조).

F2. 備邊司啓曰, 一天兵之到平壤, 不可不別樣犒勞, 如直路疲弊, 州郡固難取辦, 平壤及附近三縣等處, 酒饌諸需, 合力豐儲, 別爲犒勞事, 請馳諭於柳成龍及本道觀察使處, 上允之, (《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묘(15일)조).

F3. 伝曰, 天兵今雖一二千出來, 不無隨後加來之事, 一路供餉釜鼎葛糧等物, 以万兵之供措置以待, (《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묘(15일)조).

우선 사료 F1은 평안도 嘉山에 체재 중인 선조에게 평양에서 달려 온 풍원부원군 류성룡이 선조와 함께 원명군의 접대와 그들에게 지급할 군량 조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류성룡은 명군의 평안도 定州 도착 후, 安州의 米 20여 석으로 빚은 술과 소·돼지로 접대할 것, 명군에게 지급하는 군량으로서 5,000명 15일분에 상당하는 500석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安州 부근의 각 읍이 3일분씩을 공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평양에는 4만 여석의 곡물이 있어, 명군이 평양에 이르면(평양을 탈환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장은 없다고 한다.

다음의 사료 F2는 이 문제에 대한 비변사의 上啓이다. 명군의 평양 도착 후에 犒勞費用을 평양과 그 "附近三縣等處"(龍岡·江西·咸從)에서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점을 류성룡과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유할 것을 청하여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 마지막 사료 F3은 원명군에 공급하는 군량 이외의 물자류에 대해 추가 부대의來援을 예상해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을 하명한 선조의 지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료에 의해 조선 정부가 명군來援에 따라 곧바로 명군의 군량 조달책을 논의하였고, 그에 대한 실행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선조의 傳旨를 제외하면 매우 낙관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류성룡은 병사 5,000명 15일분으로서 500석의 군량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1명당 1일에 불과 1升을 지급하는 계산이며, 5,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에는 소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sup>42)</sup>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원

---

使于諸路, 措置糧餉』이라고 있다.

명군의 수를 꽤 많이 추측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것일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어설픈 계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문맥으로부터 판단하는 한, 그 정도의 날짜가 있으면 평양 탈환은 가능하다고 류성룡은 생각하고 있던 것 같지만, 설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한편, 비변사의 上啓는 군량이라고 하기 보다는 명군 병사를 위한 위로 비용에 관한 것이며, 역시 평양 탈환을 전제로 해서 그 후의 대응을 말한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선조의 傳旨는 원명군의 제일진이 도착한 후에 추가 부대가 파견되는 일도 상정해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명하는 것으로 선조 자신은 류성룡이나 비변사의 의견에 반드시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5일 심야에 博川을 출발한 선조는 다음 16일 아침에 嘉山에 들어가,<sup>43)</sup> 그 곳에서 신하들을 접견해 재차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석상에서 평안도 각지의 곡물 비축 상황을 알게 됨에 따라 전날의 논의가 극히 낙관적이고 안일한 전망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G. 是朝, 上在嘉山, 上引見從臣, 柳成龍曰, 清川江辺, 一爲決戰, 則庶可矣, 沈信謙言, 本郡軍糧有五六百石, 而定州則全無云, 上曰, 到今日, 始言定州無糧何耶, 成龍曰, 義州則遣洪世恭矣, 猶不能措置云矣, 上曰, 二千軍往還之糧, 亦不得措備乎, 鄭澈等曰, 博川·寧辺, 則軍糧稍有所儲云矣, 上曰, 不言可也, 群臣無有爲之志, 故至於如此也, 成龍及澈曰, 使諸將等會於此地爲當, (後略)(《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갑진(16일) 조).

사료 G에 의하면, 朝議의 석상에서 류성룡이 清川江 기슭에서 한 번 결전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嘉山 군수 심신겸<sup>44)</sup>의 말을 인용해서 그 때 명군의 거점이 될만한 가산과 정주의 군량 비축 상황에 대해, 가산에는 5~600석의 군량이 확보되어 있지만,<sup>45)</sup> 정주에는 備蓄穀이 전혀 없다<sup>46)</sup>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밖에 博川

42) 앞에서 본 사료B에는 2,000석으로 1만 명 병사의 2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1명당 1일에 1升 5合을 지급하는 계산이 된다. 그것이 여기서는 5合분만이 감액된 셈이다. 조선의 1升은 일본의 1승의 약 3문의 1 즉, 600cc이다.

43)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묘(15일)조.

44) 《징비록》 권1에는 다음 주<sup>45)</sup>에 인용한 사료에 나타나 있듯이 嘉山 郡守로 기록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불명.

45) 다음의 《懲毖錄》卷1의 기술은史料G와 동시기의 것이지만, 이것에 의하면 沈信謙은 柳成龍에게 嘉山에는 白米 1,000石의 官保有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軍糧만이 아니라, 그 밖의 官穀도 포함한 수치일 것일까. 「自駕出平壤, 人心崩潰, 所亂過亂民, 輒入倉庫, 搶掠穀物, 順安·肅川·安州·寧辺·博川, 以次皆敗, 是日, 駕發嘉山, 郡守沈信謙, 謂余曰, 此

과 영변에도 약간의 備蓄穀이 있다는 것이 정월 등으로부터 보고 되고 있었는데, 선조는 지금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 놀라, 「群臣無有爲之志, 故至於如此也」라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실제로는 2,000명의 병력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선조는 17일, 李石國을 의주에 파견해 兵馬와 糧餉 등을 사전에 조치해 둘 것을 명했다.<sup>47)</sup> 그러나 조선 측의 어려운 상황과는 정반대로, 때를 같이 하여 명 측으로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압력이 가해져 왔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청원사 이덕형으로부터의 치계가 도착하였는데, 명의 사유격·대참장 등이 병사 1,000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도강했다는 것이 보고 됨과 동시에, 명 측에서도 평양에 진격할 때 조선측에 의한 군량 공급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sup>48)</sup> 게다가 다음 18일에는 부총병 조승훈의 압록강 도강에 즈음하여 糧草를 준비해 대기해야 할 것이 조선측에 요청되었다.<sup>49)</sup>

한편, 16일에 가산으로부터 정주로 이동하여,<sup>50)</sup> 18일에 定州로부터 宣川으로 옮긴<sup>51)</sup> 선조 일행은 한층 더 북방으로 피난을 계속해 龍川을 거쳐,<sup>52)</sup> 22일에 마침내 의주에 들어갔다.<sup>53)</sup> 선조는 의주에서 요동 内附(압록강을 넘어 요동 지방으로 피난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從臣들과 상의했지만, 從臣 등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에 반대했다.<sup>54)</sup> 이러

郡糧穀頗優, 官廳亦有白米一千石, 欲以此餉天兵, 不幸事至於此, 公若少留鎮定, 則邑人不敢動, 不然亂作, 小人亦不敢留, 此將向海辺躲避矣.」

46) 본문 중의 후술 사료 I1에는 「甚少」라고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후술 사료 J2에는 「時存只二百餘石」이라고 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극히 적은 분량의 備蓄穀밖에 없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7)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을사(17일)조. 「(前略)且李石國即刻送于義州, 兵馬糧餉·一應雜物, 預先措置, 使不煩擾.」

48)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을사(17일)조. 「請援使李德馨馳啓曰, 臣受命之後, 緣一路, 夫馬幾盡逃散, 艱難得行, 今日已時, 始到義州, 適廣寧遊擊史儒·督戰參將戴朝弁, 領兵一千渡江, 臣令譯官洪秀彥告曰, 賊到城下, 已七八日, 令若徐行, 則將到十餘日之外, 不但孤城甚危, 且賊之行兵, 例以戌日來, 二十二日又是戌日, 必須及二十日前可得赴救, 答曰, 二十日, 當及到彼處, 天將号令嚴明, 雖一草一粒, 不許士卒濫取, 侵擾我軍, 万無所虞, 而一路繼餉, 似甚可慮.」

49)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병오(18일)조. 「礼曹判書尹根壽·弘文館副應敎沈喜壽馳啓曰, 臣等十七日晚渡江, 往見祖摠兵, 告倭賊已渡大同江, 摠兵曰, 今明日軍馬當渡江, 只備糧草以待云.」

50)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갑진(16일)조.

51)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병오(18일)조.

52)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정미(19일)조.

53)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경술(22일)조.

한 가운데 25일에는 좌의정 윤두수에 의해 昌城 進駐가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H. 左議政尹斗壽啓曰, 臣等前言不可過江, 則自上間以他可往處矣, 義州乃一隅之地, 龜城·朔州, 又有一路, 賊鋒若由此處, 則恐爲所困, 如昌城之地, 進駐爲當, 答曰, 然則幾時去乎, 由何處去, 回啓曰, 不得已哨探, 然後去之可也, 大駕既去之後, 恐人民又爲渙散, 去時須言于天將, 然後去之爲當, 上曰, 予雖往某處, 礼曹判書尹根壽·豊原府院君柳成龍, 不離於此, 賊若西向, 告急於天將, 成龍曰, 天將若來, 則本州倉穀, 可支萬軍一月糧, 臣之所急者, 吏遊擊·祖摠兵進兵時, 我國當有定將嚮導之事, 其將官及軍士措置事, 請令備邊司議處, 上從之,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계축(25일)조).

결국, 昌城 進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기록한 위의 사료 H에는 당시 의주에서 備蓄穀에 대한 류성룡의 발언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류성룡에 의하면, 이때 의주에는 1만 명의 병사를 1개월 유지할 수 있는 양곡이 존재했다. 병사 1명당 1일의 군량을 1승이었다고 한다면, 2만석, 1승 5합이라고 한다면, 3만석의 비축이 있었다는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군에 공급하는 군량 조달은 조선 정부에게 역시 무거운 부담이었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다음의 사료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I. 上將見夏時·黃應陽·徐一貫等三人, 出龍灣館, 先引見尹根壽·都承旨朴崇元·奉教奇自獻, (中略) 上曰, 予意糧餉亦似當並請, 不然則難支也, 根壽曰, 自天津衛輸運則易矣, (中略) 上乃許接見三人, 自外揖讓而入, 夏時爲先, 應陽次之, 一貫又次之, 行禮訖, (中略) 上曰, 小邦本來殘薄兵禍之餘, 粮餉不繼, 天朝欲救小邦, 則糧餉亦欲仰請, 而惶恐不敢, 應陽曰, 兵馬雖到無糧則奈何, 粮餉亦可船運, 一貫曰, 自有朝廷處分, 柳根曰, 賊兵若自水路直犯於遼境, 則勢難防禦, 舟師不可不請, 應陽曰, 遼東無舟師, 當入去措處, 行茶禮, 上曰, 小邦再活之命, 全繫於三大人, 請拝以別, 三人曰, 決不可乃各作揖, 上曰, 願天朝速來救濟, 且三大人, 於石翁處, 以所見言之速爲來救,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기미(2일)조).

즉, 7월 2일, 명의 병부상서 星石에 의해 파견된 遊擊 夏時·參將 黃應陽·指揮 徐一貫 등이 의주를 방문했을 때,<sup>54)</sup> 선조는 그들을 접견하여 명에 대한 병력뿐만 아니라 군량의 제공도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서 응양은 조선측의 궁상을 이해하고 糧穀을

54)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신해(23일) · 임자(24일)조.

55) 《선조실록》 권27, 25년 7월 무오(1일)조, 참고로 夏時 등의 일행은 조선에 의한 日本嚮導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다.

요동에서부터 조선에 船運하는 안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명군의 평양 탈환 실패까지의 사이에 조선측이 재차 이러한 요구를 명 측에 요구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며,<sup>56)</sup> 요동으로부터의 군량에 대한 선운 실시를 보여주는 기록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이 단계에서는 명으로부터의 군량 수송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좋다.

## 2) 義州 · 定州 사이에서의 군량 공급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군에게의 군량 공급은 조선만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조선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7월 4일, 류성룡은 명군에 공급하는 군량 조달을 위해 평안도 내의 각 읍의 備蓄穀을 재배치하는 방책을 제안했다.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sup>57)</sup>

J1. 豊原府院君柳成龍啓曰, 定州距龜城最近, 天兵所經一路, 亦惟此處爲留住之所, 而本州倉穀甚少, 今不得已先添定州之穀, 然後可以支應天兵, 定州之穀既足, 則又當分置於宣川 · 郭山等處, 此則自可觀勢爲之矣, 各官之民, 今頗還集云, 令其守令設爲方便, 稍稍輸運事, 知委于調度使, 且從事官洪宗祿, 時在昌城, 亦令馳到龜城, 與調度使同力刻日輸運後, 具數啓聞事, 急急下書何如, 答曰, 依啓,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신유(4일)조).

J2. 柳成龍啓曰, 臣近見從事官洪宗祿牒報, 昌城倉穀白米 · 田米合萬餘石, 溲州倉穀田米四千九百餘石 · 白造米各七百五十餘石 · 蒸米一百二十餘石, 兩邑馬豆合七千餘石, 以此兩邑之穀, 足以支持万兵數月之糧, 只是道里窵遠, 人馬不俱輸運爲難耳, 然昌城之穀, 可以從船路, 順流而下數日可達義州, 溲州則必輸運於龜城, 又自龜城輸到定州, 其勢便, 但龜城之穀, 其數自多, 今姑置淑州之穀, 先輸龜城倉穀於定州 · 博川, 則可以支持天兵, 請令調度使, 及時措置, 答曰, 依啓, 不但收聚於定州, 如宣川 · 郭山分置如何, 且聞百姓還集云, 令各其守令負持以輸如何,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신유(4일)조).

56) 본문 중의 후술 사료 K2에 의하면, 요동의 자문에 조선에서의 군량 부족을 고려하여 명군 병사에게 「乾糧」을 지참시키고 싶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軍糧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본격적인 명으로부터의 군량 제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57) 여기에서는 《宣祖實錄》으로부터 인용했지만, 《憲愍錄》에도 류성룡에 의한 거의 동문의 장계가 실려 있다. 《憲愍錄》卷3, 芹曝集, 啓辭「定州糧穀添備啓」 및 「龜城糧穀形止及請褒獎自願從軍人啓壬辰七月三日」.

우선 사료 J1에 보이는 류성룡의 상계에서는 定州는 龜城에서 가장 가깝고 남하하는 명군이 주둔하는 장소가 되지만, 비축곡이 근소하므로 龜城穀을 정주로 옮겨, 명군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곡을 얻은 후에, 宣川·郭山 등에 그 잔여를 분치해야 한다는 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龜城으로부터 정주로의 군량 수송에 관해서, 창성에 체재 중인 종사관 홍종록을 龜城에 급파해, 調度使<sup>58)</sup>와 협력하여 수송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그 수송액을 정부에 보고시키도록 명할 것을 청하고 있다. 이것은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

다음에 사료 J2를 보면, 류성룡은 홍종록으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여 昌城의 관창에 白米(정백미)·田米(조)를 합쳐 1만 여석, 哺州의 관창에 田米 4,900여석, 白米·造米(현미) 각 750여석, 蒸米 120여석이 각각 비축되고 있으며, 또, 이들 두 읍에는 馬豆 7,000여석도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만큼의 양곡이 있다면, 병사 1만 명에 해당하는 수개월 분의 군량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①창성·삭주는 遠隔의 땅이며 육로 수송은 곤란을 수반하지만, 昌城穀의 경우는 압록강의 흐름에 따라 배로 내리면 수일 만에 의주에 옮길 수 있다. ②한편 哺州穀은 龜城에 수송해야 하며, 더욱이 그것을 龜城으로부터 정주에 수송하는 것이便宜이지만, 龜城에는 비축곡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哺州穀은 그대로 두고, 龜城穀을 정주와 博川으로 먼저 운송한다면, 명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여 그것을 調度使에게 명하여 시기를 보아 실시할 것을 청했다.

선조는 기본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다만, 정주뿐만 아니라 宣川과 郭山에도 양곡을 분치하는 것과 수송은 해당 읍의 수령 책임 하에 실시할 것에 대한 시비를 묻고 있다. 전자는 이미 류성룡이 제안한 것으로 그것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류성룡의 이 제안은 명군이 의주·정주 루트를 통과해 남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남 도내 각 읍의 官穀을 정주와 의주의 두 곳 내지는 그 부근의 읍에 집중시키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정주의 경우, 전술한 사료 G에서는 備蓄穀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었으며, 사료 J1에서도 「甚少」라고 말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류성룡의 제안이 그대로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龜城穀(액수는 불명)이 정주에 반입되는 것이 되고, 게다가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삭주로부터도 수송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정주의 군량조달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또 의주에 대해서는 앞의 사료 H에 의하면, 의주에는 이미 병사 1만 명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액수, 추정하여 환산한

58) 당시 調度使에는 洪世祿·洪世恭·沈友勝 3인이 임명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調度使가 그 중의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면, 2~3만석의 곡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류성룡의 제안대로 昌城穀 1만 여석이 의주에 수송되어진다면, 3~4만석 정도의 곡물이 의주에 비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류성룡의 제안으로부터 2일 후인 7월 6일, 비변사와 또 다시 류성룡에 의해 명군에의 군량 확보를 둘러싼 상계가 연달아 행해지고 있다.<sup>59)</sup>

K1. 備辺司啓曰, 金信元之往于三縣, 本非朝廷所令, 今者馳啓, 至欲出死力糾義兵, 目今天兵糧料方急, 三縣之穀, 催促船運於定州·安州等處, 天兵若往平壤, 則其處糧餉, 亦令信元極力措置, 答曰, 依啓,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계해(6일)조).

K2. 豊原府院君柳成龍啓曰, 沿道各官, 見儲軍糧, 惟義州最優, 定州則雖名大邑, 而時存只二百餘石, 龜城之穀, 若及期輸運, 則似可接濟, 臣意, 天兵發行時, 自義州齋三日糧, 初日宿良策, 而龍川添給一日糧, 則三日糧猶在, 第二日宿林畔, 宣川又添給一日糧, 如良策, 則三日糧猶在, 到定州, 嘉山又如之, 安州則以私船隻輪運龍岡三縣之穀五六百石, 泊于老江下流, 天兵臨到之時, 又支給于安州, 則是沿途自義州至安州, 皆以其處之穀支給, 而義州所齋三日之糧, 則依舊猶存, 足可及到於平壤, 賊若望大軍之來, 棄城南逃, 則平壤餘穀, 可以接濟, 仮使不然, 天兵既到城下, 三縣之穀, 人負馬載, 不患難運, 計實無便於此者, 伏見遼東咨文, 亦以我國糧餉不敷, 至欲齋持乾糧, 其委曲方便, 欲濟大事之意至矣, 以此明言曲折於天將, 則似無不從之理矣, 但馬料則持去似重, 當於各站備待, 以此意議處何如, 前日康士雍之去, 臣卽令船運三縣白米六百石, 輸到定州, 已運龜城之穀, 則雖非三縣之穀, 可以支給, 三縣之穀, 則姑令移泊于安州近處以待, 事甚便當, 議于大臣, 則其意亦然, 但必須別遣一人, 如宣伝官之類, 專掌爲之, 然後可以及時矣, 臣病歎, 則自當驅馳道路, 親自檢飭, 而不幸病勢如此, 從事官辛慶晉, 使之先期馳去, 整齊爲當, 故敢啓, 答曰, 依啓, 辛慶晉亦爲發送,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계해(6일)조).

우선 사료 K1의 비변사 상계는 김신원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나서서 「三縣」, 즉 평양 부근의 3읍(龍岡·江西·咸從)으로 나아가 사력을 다해 의병을 규합하려고 하고 있지만, 명군의 군량 문제가 긴급을 필요로 하므로 그 김신원에게 명하여 「三縣」의 양곡을 정주·안주 등으로 수송시킬 것, 그리고 명군의 평양 탈환 후에도 그에게 군량의 조치에 대해 일임시킬 것을 청하여 선조의 재가를 얻고 있다.

한편, 사료 K2의 류성룡 상계에서는, ①명군이 의주로부터 평양에 진군 할 때의 군량 공급방식, ②평양 도착 후의 군량 조치, ③명군의 「乾糧」 지참, ④「三縣」穀에 대한

59) 여기에서는 《宣祖實錄》에서 인용했지만, 사료K2에 대해서는 《憲憲錄》에도 류성룡에 의한 거의 동문의 장계가 실려 있다. 《憲憲錄》卷3, 芹曝集, 啓辭「請遣從事官整齊一路芻糧啓」.

정주로의 수송, ⑤양곡 관련의 사무를 전담하는 관리의 파견 등에 대해 그의 제안과 의견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①이다. 여기에서는, 명군이 의주를 출발할 때, 의주에서 우선 3일분의 군량을 지급하고, 다음날 龍川에서 추가로 1일분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에 宣川에서 또 1일분을 지급한다고 하는 군량 공급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정주·가산에서도 같은 방법을 취해 안주에는 「龍岡 三縣」穀 5~600 석을 私船으로 수송하고, 老江 하류에 대기시켜두어 명군의 정주 도착 후에 이것을 지급한다. 이러한 군량 공급 방식을 취한다면, 명군병사는 항상 3일분의 군량을 소지하고 있게 되어 평양까지 진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 정부에서는 오로지 명군을 위한 군량을 얼마나 조달·확보하는가 하는 점에 논의가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확보한 군량을 어떻게 명군 병사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필자가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최초이다.

②의 명군의 평양 도착 후에 대한 군량 조치로서, 명의 대군이 평양에 밀어닥치게 되면, 일본군은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갈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평양에 비축되어 있는 곡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만약 일본군이 퇴각하지 않아도 「三縣」穀을 人馬로 평양까지 옮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한다.

③은 遼東都指揮司로부터의 자문에, 조선의 군량 부족을 고려해 명군 병사에게 「乾糧」을 지참시키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委曲方便, 欲濟大事之意至矣」라고 평가하여, 이것을 자세하게 明將에 명언한다면, 明將이 이것에 따르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馬料에 대해서는 무거워서 지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站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명으로부터 夏時·參將 黃應陽·徐一貫 등이 의주를 방문했을 때,<sup>60)</sup> 선조가 병력뿐만 아니라 군량의 제공을 명에 요구한 것을 보았는데(전술 사료 I), 그러한 요구가 실현된 흔적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의 군량 부족을 보충할 정도의 가벼운 조치는 명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장에 대해 조선 정부가 이것을 실제로 신청했는지, 혹은 실제로 명군이 「乾糧」을 지참했는지 어떤지는 불명하다.

다음의 ④는 사료 K1의 비변사 상계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다. 즉, 이것보다 앞서 류성룡의 지시에 의해 康士雍이라는 인물이 「三縣」으로 나아가 白米 600석을 定州에

60) 《선조실록》 권27, 25년 7월 무오(1일)조. 참고로 夏時 등의 일행은 조선에 의한 日本嚮導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船運하여 끝마치고 있었으며, 龜城穀도 별씨 정주에 수송되고 있었으므로 「三縣」穀을 일부러 정주에 수송할 필요는 없었고, 「三縣」穀은 船運하여 안주 부근에 정박시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이것에 의해 앞의 사료 J1과 J2에 있던 류성룡의 제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sup>61)</sup> 그리고, 정주에는 龜城뿐만 아니라 남부의 龍岡·江西·咸從 등에서도 양곡이 수송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 ⑤에서는 지금까지 류성룡이 말해 온 바와 같이 평안도 내에서의 군량 문제 전반을 전담시키기 위해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류성룡 자신이 그 직무를 떠맡아야 할 것이지만, 痘 때문에 완수할 수 없다고 하여<sup>62)</sup> 종사관 신경진을 파견할 것을 청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우선 당일 안에 신경진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스스로 이튿날 아침 부임할 것을 류성룡 스스로가 다시 선조에 청원하여 재가를 얻고 있다.<sup>63)</sup>

그런데, 앞의 사료 J1과 J2에서 류성룡의 제안(龜城穀·朔州穀을 정주에, 昌城穀을 의주에 수송하는) 가운데, 龜城穀의 정주 수송이 별씨 완료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료 K2로부터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額의 군량이 정주로 수송된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비록》에 수록된 류성룡의 다음의 장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 L. 七月初九日，同副承旨成貼有旨書狀，臣在定州祇受，唐兵支待糧料，自義州，良策·車輦·林畔，各備五千人一日之糧，仮家釜鼎柴草等物，略已措辦，定州則白米五十石·造米五十石·田米五百三十六石，從事官洪宗祿與府使尹承吉，從龜城同力措置，亦已輸到，此乃五千兵六日之糧，(後略)(《懲毖錄》卷6，辰巳錄「一路軍糧措置緣由及留定州調病前進狀七月十三日」)

61) 이것은 다음 《懲毖錄》의 기술로부터 명확해진다. 《정비록》 권1. 「進至定州，洪宗祿，盡起龜城人，輸運馬豆及小米，到定州·嘉山者，已二千餘石矣。」

62) 후술 사료N에는 「臣所患痔瘡」이라고 있으며, 柳成龍은 이때 痢疾을 앓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63)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계해(6일)조. 「柳成龍啓曰，臣伏覩伝教，以天兵糧餉支待事，急緣臣有病，欲令左相尹斗壽，出而措置，但沿途糧料，臣自前勾管，必無不及之理，且臣雖有病，未死之前，自當限力驅馳而行在接應緊關之事，不但糧料一事，三公之中，只有左相一人，豈可出外臣，今日先遣辛慶晉，明曉力疾隨行，不至遲緩，答曰，依啓。」

또한 여기서 보이는 유성룡의 狀啓는 《懲毖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懲毖錄》 권3, 芦曝集, 啓辭 「請自行措置糧餉啓 壬辰七月六日」.

전술한 바와 같이 류성룡은 7월 6일, 평안도 내의 군량 문제 전반을 관장하기 위하여 병을 참고 의주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조에 청해, 재가를 얻었다(전술사료 K2). 그리고 예정대로 7일 아침 일찍 의주를 출발해, 같은 날 의주의 남쪽 33리(약 13.2km)<sup>64)</sup>에 위치한 所串驛<sup>65)</sup>에 도착하여<sup>66)</sup> 9일에는 정주에 도착하고 있었다. 사료 L은 그가 정주 체재 중의 7월 13일에 보낸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7월 13일 현재 정주에는 龜城으로부터 백미 50석, 造米 50석, 田米 536석이 이송되어 오고 있으며, 이것은 병사 5,000명의 6일분의 군량에 상당한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의주·정주 간에 위치하는 良策(龍川) · 車輦(鐵山) · 林畔(宣川)의 각 역에도 각각 병사 5000명의 1일분에 해당하는 군량이 배치되고 있었다.

이 사실로부터 정주 및 의주에서 거기에 이르는 길가의 제읍에 대해서는 앞의 류성룡의 제안(전술 사료 J1K2)에 거의 따른 형태로 군량의 확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다음의 기록을 보면, 먼저 류성룡이 제안하고 있던 창성곡의 의주수송(전술 사료 J2)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시작되어 있었던 듯하다.

M. 備辺司啓曰, 義州雖有儲穀, 天兵千名, 方在此處, 而行在用度亦繁, 繼用之策, 不可少緩, 已令輸運昌城米三百石, 而厥數亦少, 嶄州白米二百石, 昌城加一百石, 卽時輸運之意, 行移何如, 答曰, 依啓,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갑자(7일)조).

사료 K2에서 류성룡은 의주의 양곡 비축 상황에 대해 「沿道各官, 見儲軍糧, 惟義州最優」라고 말하고 있어(전술 사료 K2), 昌城穀의 의주 수송은 그만큼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료 M에 의하면, 류성룡의 제안이 나온 3일 후인 7월 7일에는 창성의 미 300석을 의주로 수송하는 것이 이미 하명되고 있었다. 다만, 앞의 류성룡의 제안에서는 창성에는 1만여 석의 白米 · 田米가 있었기 때문에(전술 사료 J2), 300석은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 비변사 상계에서도 이것으로는 적기 때문에 삭주의 白米 200석과 昌城穀 100석을 곧 바로 의주에 수송할 것이 요청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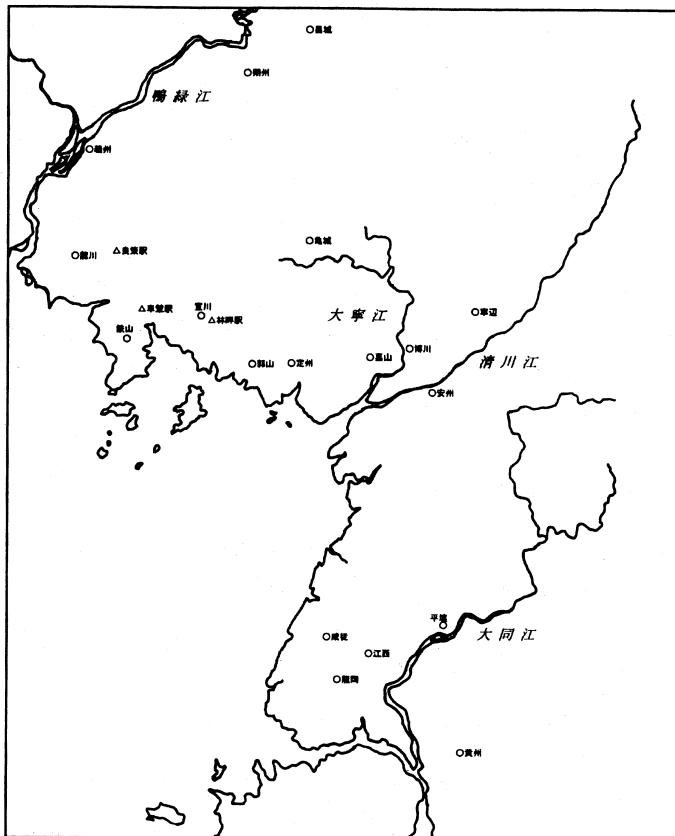
그런데, 창성으로부터 의주로의 양곡 수송에는 압록강의 선운을 이용하는 것이 상정되고 있었다(전술 사료 J2). 그러나 1만석이라는 대량의 양곡을 한 번에 수송하려

64) 조선의 里는 일본의 里의 約1/10에 상당한다.

6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平安道義州牧驛院條의 「所串驛」 割註에 「在州南三十三里」라고 있다.

66) 후술 하는 주 67의 인용사료 앞부분을 참조.

면, 당연히 대량의 선박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료 M으로부터 양곡은 존재해도 수송 능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주는 접어두고라도 의주로의 군량 배치라는 면에서, 실제로는 생각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실제로 의주에 모아진 군량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도 불명하다.



〈圖 2〉

### 3) 정주 이남 및 황해도에서의 군량 공급

이상과 같이 의주에 관해서는 반드시 순조롭지 않았던 인상을 받지만 아무튼 조선 정부는 의주와 정주, 그리고 의주·정주 루트의 연도에 위치하는 제읍에 대해서 평안도 내의 양곡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주·정주간 군량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가능한 한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sup>67)</sup> 그러나, 가산·안주를 거쳐 평양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군량의 조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 구간의 군량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선 정부 내에서 논의는 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되고는 있었다. 「龍岡三縣」 곡 5-600석을 사선으로 안주에 수송하고 이것을 老江 하류에 대기시켜 두어 명군의 정주 도착 후에 지급한다고 하는 류성룡의 제안이 그렇다(전술 사료 J2). 이것에 대해서는 비변사가 김신원에게 「三縣」 곡의 정주·안주 등으로 수송을 명하도록 선조에게 청하여 재가를 얻었고(전술사료 K1), 그에 대해서 더욱이 류성룡이 「三縣」 곡은 운반하여 안주 부근에 정박시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전술사료 K2). 그러나, 이 「三縣」 곡의 안주 이송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구간의 군량 조달 상황은 꽤 우려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다.

N. (前略) 嘉山郡倉穀，散失殆盡，軍糧則以定州所有可推移齋持，而馬豆則本州見在之數僅千餘石，恐有不足之憂，安州糧穀多少，尙無來報，尤爲可慮，臣見近日陰雨連綿，處處川渠漲溢，萬一未易開鑿，而許多兵馬，久留一處，則數少糧餉，繼備無路，極爲悶迫，三縣穀，輸運於安州事，亦連續遣宣伝官及軍官督促，而時未知來泊與否，(中略)臣賤疾猶未少差，艱到定州，不得已留一二日，待歇前進于嘉山·安州等處，檢察凡事計料，(《懲毖錄》卷6, 辰巳錄「一路軍糧措置緣由及留定州調病前進狀七月十三日」)

67) 원래 平安道內의 군량조달 책임자였던 류성룡에게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가 7월 8일에 所串驛에서 보낸 장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臣昨日病甚，不能遠行，艱到所串，今日待病勢少歇，將向良策，道路應行之事，已爲移文，再三知委，且令從事官辛慶晉，先去料理，臣隨後點視計料，大抵自義州至定州糧料，雖百計措置，僅可支給四五千兵馬之食，万一天兵多數越江，而盡出此路，則支持之事，極爲可慮，(後略)」(《懲毖錄》卷6, 辰巳錄「所串驛陳運糧便宜及請咸從校生崔忠國等褒賞聳勸七月八」). 즉, 의주·정주간의 비축군량을 4,000~5,000명의 兵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이라고 하는 점은 전계사료L과도 일치하지만, 류성룡에 의하면, 「百計措置」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그 정도이며, 명의 대군이 왔을 경우에는 支持에 대해서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료N은 앞의 사료L로서 인용한 류성룡 장계의 후반으로 사료L에서는 생략된 부분이다. 류성룡은 여기서 정주 이남의 가산과 안주에서는 충분한 군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가산의 경우 군창의 비축곡은 탕진되어 있었다고 한다. 선조일행이 가산에 체재하고 있던 6월 16일 단계에서 가산에는 5~600석의 군량 비축이 있다고 하는 가산군수 심신겸의 발언이 류성룡에 의해 소개되고 있었지만(전술사료 G), 그러한 양곡은 선조일행이 가산을 떠난 직후, 반란민에 의해 약탈되어 버렸던 것이다.<sup>68)</sup> 류성룡은 병사가 먹는 양곡에 대해서는 정주에서 가산으로 양곡을 수송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군마의 사료 곡은 정주에도 천여석 밖에 없고,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안주에 대해서는 안주 소재의 비축액에 대한 보고가 도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가장 우려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三縣」 곡의 안주 이송에 대해서도 선전관·군관을 파견해 독촉하고 있지만 아직도 오고 있다는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한다.

가산·안주 모두 사태는 간파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류성룡에게 안주의 군량 비축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보다 문제였다. 그는 전술사료 N과 같은 날 또 다른 1통의 장계를 선조에 보내고 있는데,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O. 本月十一日右副承旨成貼有旨書狀, 臣在定州祇受, 江辺土兵及各官起送精兵, 觀察使李元翼·兵使李賓太半領率已在安州, 惟元帥金命元在此等候唐將天兵今日已時自林畔已到此處, 明曉欲發向嘉山矣, (中略)惟三縣倉穀, 回泊安州之事, 尚無回報, 海道之事, 慮難及期, 邁調度使洪世恭, 始於昨日來到, 因使洪世恭, 先去安州催促, 其餘干係軍機事, 則與金命元, 相議區處計料, 臣所患痔瘡, 數日來加重, 不能運身, 欲待少歇進去嘉山, 而難可預期, 恐誤大事, 不勝憂悶, (《懲毖錄》卷6, 辰巳錄「有旨祇受及使洪世恭往安聚催運糧餉狀七月十三日在定州」)

명군은 별씨 정주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三縣」 곡의 안주 이송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고, 안주 도착까지 군량을 조달할 수 있을지 어떨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류성룡은 우연히 정주에 도착한 調度使 洪世恭을 안주에 파견해 현상 보고를 재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68) 《懲毖錄》卷1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是日, 駕發嘉山, 郡守沈信謙, 謂余曰, 此郡糧穀頗優, 官廳亦有白米一千石, 欲以此餉天兵, 不幸事至於此, 公若少留鎮定, 則邑人不敢動, 不然亂作, 小人亦不敢留此, 將向海邊躲避矣, 時信謙已不能令其下矣, 獨余所帶軍官六人及路中所收潰卒十九人, 余約束使之自隨, 故各帶弓箭在傍, 信謙欲藉此自護, 故云然, 余不忍遽發, 少坐大門, 日已過午, 更念無上命, 而擅留不行, 於義未安, 遂與信謙別, 行上曉星嶺, 回望嘉山, 則郡中已亂矣, 信謙盡失倉穀而逃.」

이것들 사료 NO로부터 명확해지는 바와 같이 정주에서 남쪽, 특히 가산·안주 이남에서 명군에의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명군 도래를 목전에 앞두면서도 아직도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고, 류성룡은 그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류성룡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장계를 받은 조선 정부측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 논의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평안도 내의 군량 조달에 대해서는 류성룡에게 일임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정부 내의 관심은 별씨, 평양 회복 후, 명군이 더욱더 남하하여 황해도에 들어간 후의 군량 문제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황해도에서의 군량 조달·수송에 관한 조선 정부 내의 논의는 7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P. 伝曰, 平壤之賊, 若得驅逐, 黃海道軍糧不足, 聞忠淸道牙山倉稅米多積云, 令本道監司, 載船分泊於天兵或我兵隨所到處, 繼餉之意, 令備辺司, 速爲議處, 備辺司回啓曰, 臣等意, 不及遠每, 以平壤之賊爲驅逐之後, 黃海道軍糧, 則龍岡儲穀甚優, 計欲移用於黃海道矣, 牙山倉稅米雖多, 海路風汎, 不可定期瓮津到泊, 牙山稅米一千二百石, 如未過長山串, 則令黃海監司措處, 或泊於白川, 或泊於京江, 隨我兵所到繼餉何如, 答曰, 依啓, 牙山稅米, 今雖未及, 卽令分載, 而中流海路, 觀勢應用事, 並爲下書, (《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무진(11일)조).

이날 선조는 황해도의 군량 부족을 충청도 아산창의 전세곡에 의해 보충하는 조치에 대해 비변사에 자문했다. 아산창의 전세곡이라고 하면, 지난 5월 13일, 비변사의 요청에 따라, 황해도 관찰사에 명해 아산창의 조운 선단을 서해 해로로 이송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상기될 것이다(전술사료 B). 그 때는 아산창의 전세곡을 당시 행궁이 있던 평양으로 수송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머지않아 평양은 함락되었고, 선조 일행은 의주에까지 피난했다. 그 사이에 이 조운 선단이 옮기고 있던 전세곡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였다. 그러한 가운데, 평양 회복 후에 이 조운 선단의 전세곡을 명군 및 조선 관군의 주둔지로 수송해 군량에 충당한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안이 선조로부터 제시되고 있었다.

이 지시에 대해서 비변사는 평안도 龍岡의 備蓄穀에 여유가 있으므로, 이것을 황해도로 이급 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산창의 전세곡 1,200석에 대해서는 해로로 수송하는 관계상, 기한을 정해 황해도 瓮津에 도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조운 선단이 아직 長山串을 통과하고 있지 않다면,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해 황해도 白川 또는 京江(한성 부근에서의 한강 호칭)에 정박시켜, 조선 관군의 진

행에 따라 군량으로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선조도 이것에 응해 아산창의 전세곡은 조운선에 분재시킨 채로 해상에 대기시켜 상황을 보아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조운 선단은 정주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건에 대해 《선조실록》에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정비록》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Q1. 進至定州, 洪宗祿, 盡起龜城人, 輸運馬豆及小米, 到定州 · 嘉山者, 已二千餘石矣, 余猶以安州以後爲憂, 邁忠清道牙山倉稅米全一千二百石, 載船, 將向行在, 到泊於定州立嵒, 余喜甚, 卽馳啓曰, 遠穀適至如期, 是天贊中興之運, 請拝取以補軍餉, 令守門將姜士雄, 馳去立嵒, 分運二百石定州, 二百石嘉山, 八百石於安州, 安州卽以近賊, 姑令停船水中, 以待之, (《懲毖錄》卷1).

Q2 臣旣爲祇受書狀後, 卽因忠清道進上陪去人所言, 聞牙山倉白米一千二百石, 已泊于定州立巖地, 距定州三十里許, 若乘潮回泊于安州, 則一日可到, 臣方以安州以後糧餉接濟爲憂, 遠道許多糧船, 如期適到, 必是天贊國家中興之運, 不勝喜幸, 卽時發遣守門將康士雍及臣帶率軍官, 使之馳去, 令於明日內到泊于安州, 此船旣到安州, 則軍糧自爲可繼, 而順安縣亦有馬豆一千餘石, 人馬所需, 皆無匱乏之憂, (後略)(《懲毖錄》卷6, 辰巳錄 「馳啓牙山糧船到泊緣由及發遣曹好益召募江東等處軍兵且請洪世恭勿遞調度使仍舊察任狀同日」)

즉, 사료Q1에 의하면, 아산창의 전세곡을 실은 조운 선단은 행궁을 목표로 항해하던 도중에 정주의 立嵒(또는 立巖)에 기항했기 때문에 정주에 체재 중이었던 류성룡은 그 화물 1,200석 중 정주 · 가산에 각각 200석, 안주에 800석을 나누어 운반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안주로 옮기는 800석에 대해서는 안주가 일본군의 주둔지에 가깝기 때문에 당분간 배에 탑재한 채로 해상에 대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료Q1의 앞부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주 · 가산으로의 군량 집적은 이미 류성룡의 지시를 받은 홍종록에 의해 실행되고 있었지만(이것은 전술 사료 J2의 후반 부분의 기술에 상응한다), 전개사료NO의 기술로부터 명확해지는 바와 같이 류성룡은 안주 이남의 군량확보에 강한 우려를 안고 있었다. 전개사료 NO와 같은 날에 쓰여진 장계인 사료 Q2의 문면에도 그러한 염려는 잘 나타나고 있다. 아산창 조운선단의 정주 기항은 이러한 류성룡의 우려 · 염려를 불식하고, 사태를 크게 개선해 주는 문자 그대로의 요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天贊國家中興之運」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과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사료로부터 명확해지는 바와 같이 아산창의 조운 선단은 벌써 항해도를 통과해 버렸다. 그 때문에 전술사료 P에 보이는 비변사의 제안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화물이었던 전세곡 1,200석의 대부분이 안주의 군량에 충당되었으며, 일부는 정주·가산으로도 옮겨졌다. 아산창의 전세곡 1,200석은 황해도의 군량으로서 전혀 이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황해도의 군량 조달책으로서 龍岡의 餘剩穀을 황해도에 이급하는 조치만이 결정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차피 실현될 명군의 남진을 생각한다면, 황해도의 군량 문제 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변사가, 황해도 군량문제의 담당 관리를 현지에 파견하도록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R. 備辯司啓曰, 黃海道措處之事最急, 而堂上中可遣者絕少, 沈喜壽, 則接待天將, 李石國則方病, 同副承旨柳永慶, 可堪委寄之命, 差遣爲尙, 軍官四人, 亦令帶去何如, 上允之, 使稱爲巡察使,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갑술(17일)조).

사료 R에 보이는 바와 같이 7월 17일, 비변사의 요구는 선조의 재가를 얻었고, 순찰사로서 동부승지 유영경을 황해도로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논의를 보면, 조선 정부는 명군의 평양 탈환을 이미 약속된 것으로 간주해, 한층 더 그 앞까지를 간파하여 군량 조달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명군이 남진을 개시하여 평양 탈환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던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승훈이 인솔하는 명군의 병마 3,000 기는 이때 이미 가산에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마침내 이날 일본군이 점거하고 있던 평양성을 공격해 들어갔다.<sup>69)</sup> 그러나, 조선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遊擊 史儒는 전사했고, 조승훈은 안주로 퇴각하여 요동으로 귀환하려고 했었다.<sup>70)</sup>

명군의 평양 탈환 실패에 의해 군량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명에 대해서 재차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에 즈음해, 조선 정부에서는 그를 위한 군량 조달이 다시 큰 과제로 논의되었다.<sup>71)</sup> 10월에 이여송의 조선 파견이 결정되어,<sup>72)</sup> 12월에 명군의 大部隊가 조선에 들어 온<sup>73)</sup> 후부터 조선 정부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원명군에 대한 군량 공급에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69)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정축(20일)조.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조.

70)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정축(20일)조. 北島万次, 앞의 책, 114-116쪽.

71) 7월 26일에는 명군에게 재차의 來援을 요청하기 위한 군량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다(《선조실록》 권27, 25년 7월 계미(26일)조).

72) 《명사》 권5, 本紀16, 神宗 万曆 20년 10월 임인(16日)조.

73) 《선조실록》 권33, 25년 12월 신해(25일)조.

#### IV. 맷음말

이상, 본 보고에서는 文祿·慶長의 役에서 조선 측의 군량 공급체제에 대해, 연구의 현상과 과제를 정리하고, 나아가 개전 초기 조선 정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어떠한 정책이 실시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일단 지금 까지 말해 온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맷음말을 삼고 싶다.

우선, 文祿·慶長의 役에서 조선 측의 군량 공급체제에 관한 연구로서는 현재까지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수편의 專論이 발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3편의 논문의 내용을 검토했다. 3편의 논문은 모두 이 전쟁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 관군·원명군에게의 군량 조달·수송 정책의 내용과 그 추이, 혹은, 조선군·일본군·명군 각각의 군량 조달책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文祿·慶長의 役 기간 중에 조선 정부의 군량 공급체제의 개요와 그 시기적 추이는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요이며, 조선 정부 내에서 군량 조달·수송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것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그 각각의 전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입각해서 미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의 남겨진 과제인 채로 있다. 또,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레벨에서의 군량 조달·수송 정책을 논할 뿐으로, 각 지역·각 부대 단위로 현장의 지휘관이나 의병장이 어떠한 군량 공급체제를 취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거의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미시적인 연구도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보고에서는 상술한 과제 중에서 특히 전자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시도했다. 선조 25년(1592) 4월의 개전 이후, 동년 7월 명장 조승훈에 의한 평양 탈환 실패까지의 약 3개월 사이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선조실록』의 기사에 의거하면서 군량 공급문제를 둘러싼 조선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자취를 살펴보았다. 거기서 밝혀진 것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조선 정부 내에서 군량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개전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한 후의 일이다. 우선, 행궁에서의 제 경비에 대한 재원과 군량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때마침 조운 도상에 있던 충청도 아산창의 전세곡을 활용할 것이 하명되었다. 그러나 이 전세곡이 평양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조 일행은 한층 더 북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북상하는 일본군에의 반격·요격 태세를 정돈하기 위해, 황해도·강원도의 潛倉穀과 屯田의 收穫穀 등이 군량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군량의 조달처나 조달액은 차츰 확대·증가하는 경향에 있었고, 당면 필요한 군량의 확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수송에는 용이하지 않았으며, 대책으로서 「三江」의 私船을 동원하는 조치 등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여 만석의 군량이 평양에 집적되었다.

(2) 5월 하순, 조선군이 임진강 전투에서 패해 일본군이 평양에 압박해 옴에 따라 선조 일행은 영변·博川·가산을 거쳐 의주에까지 피난했다. 그 사이, 6월이 되자 명으로부터 조선 구원에 대한 의향이 전해졌고, 6월 중순, 원명군에 의한 압록강 도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는 새롭게 원명군에게의 군량 공급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명군의 압록강 도강이 개시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조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당초 그 내용은 꽤 낙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의주·평양 간 명군의 진군 루트에서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할 정주에 양곡이 거의 비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군이 의주·정주 루트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의주와 정주 내지 그 부근의 읍에 평안도 내 각 읍의 양곡을 집중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정주 및 연도의 각 읍에는 상당한 액수의 양곡이 집적되었지만, 의주 쪽 방면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군량은 확보할 수 있어도 그 수송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조선 정부는 명에 대해서 군량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3) 조선정부의 군량 조달은 정주에서 남쪽, 가산·안주를 거쳐 평양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우려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류성룡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아들인 조선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조선 정부의 관심은 명군이 평양 회복 후, 남진 할 때에 통과하는 황해도에서의 군량 공급으로 옮기고 있었다. 황해도에서의 군량 공급은 7월 이후, 논의되게 되었다. 우선, 일찍이 평양의 행궁으로 수송이 지시되고 있었던 아산창의 전세곡을 황해도의 군량에 충당할 것이 선조로부터 제기되었다. 논의한 끝에 황해도에는 일단 평안도 龍岡의 餘剩穀을 이급하고, 아산창의 조운 선단은 당분간 해상에 대기시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게 되었지만, 조운 선단은 이미 황해도를 통과해 평안도 정주에 이르고 있어, 결국 이 전세곡은 류성룡의 지시에 따라 군량 부족이 염려되고 있던 안주를 비롯한 평안도 내의 군량에 충당되었다.

다음으로 황해도의 군량문제에 대해 현지로 부임시켜 담당케 한다고 하는 순찰사의 파견이 결정되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명군의 평양 탈환을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였고, 명군의 남진에 부응해 앞을 내다본 군량 조달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명군의 평양 탈환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군량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 토론녹취문

- 주 제 :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開戰初期에 있어서의  
朝鮮側의 軍糧調達體制
- 발표자 : 六反田 豊 委員
- 일 시 : 2003. 9. 20(10:00-12:00)
- 장 소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정구복, 조광, 한문종, 박재광, 홍성덕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 豊, 米谷均, 橋本雄, 伊藤幸司

## 토론문

손승철 : 지난번 토론에서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요청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마도 회의에 녹취한 것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 안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녹음 시설을 여기 준비를 했는데, 가능하면 마이크를 사용하여서 마이크에 바싹 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순서를 좀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니까 조금 토론이 격렬해 지니까 와~ 여기저기서 이야기 하니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순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측에서 정구복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구복 : 예, 六反田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임진왜란의 군량에 대한 기준 논문을 검토한 뒤에 그 전쟁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세 시기 중에서도 본 발표문에서는 제1기에 해당하는 초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록 자료와 懲懲緣이라고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미세적인 연구로서 논문 자체로서는 잘 정리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의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발표는 개인 학자로서의 논문이 아니고 국가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제의식은 한일양국의 공동문제로써 異見이 있는 문제를 다루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연구사에 있어서는 일본 연구사와 또는 그 조선측 연구사를 비교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제1기의 초기부분만을 다뤘는데 이 논문이 내년 5월 종료시까지는 전 기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발표자의 논문 제목에서 군량공급체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내용은 군량조달과 수송에 대한 상황설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선측의 군량공급체계가

평시 체제는 어떠한 것이었고, 전시를 당해서는 비상 체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이 연구시기로 잡은 기간 중에서도 전투가 실제로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이순신의 해전에서 군량미 조달과 확보책은 어떠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의병전투에 대한 군량문제는 어떠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자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이는 토론자가 지난 5월 대마도 회의 때에 역사가가 문현실증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제기하는 데는 실록 기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군량 문제를 다뤘을 때에 그 결론은 앞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를 쓰는 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완 논문에서는 적어도 수군에 대한 군량사용 문제나 또는 의병의 전체에 대한 군량문제는 못 다룬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몇 개 의병에 대한 군량 문제를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조그마한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來援明軍」이라는 용언데, 이것이 물론 「來援한 명나라 군사」라는 뜻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붙여서 명사형으로 「來援明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來援明軍」이라고 명사형으로 쓴 이유가 다른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어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논문 6페이지 3절입니다. 셋째 줄에 「조선정부는 평양으로 遷都해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천도를 선언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도했다는 역사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조선 왕이 평양에 播遷했을 때라든지 또는 평양에 머물렀을 때라든지 표현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본 토론자는 지난 5월 대마도 회의 때에 임진왜란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의 명칭이 한국과 일본, 명나라 세 나라가 참여한 국제적인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국대로 부르는 것 보다 적어도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연구결과물에서만은 공동으로 명칭을 정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3국에서 당시 사용했던 간지에 따라서 임진년에 시작된 전쟁이라고 하는 뜻으로 壬辰戰爭 또는 壬辰戰亂이라고 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측 의견으로써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六反田：제 논문, 발표내용에 대해 아주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그,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아까 정구복 선생님은 제가 임진왜란, 文祿慶長의 役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 세 시기로 구분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김용곤 씨입니다. 이것은 일본어판 3페이지에, 저어, 세 시기에 이것을 나누어서 고찰하였다고 소개했을 뿐이지, 제가 그 시기구분을 인정한다던가 안 한다던가 저는 한마디도 논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지, 그 정도까지 제 자신이 사료도 꼼꼼히, 뒤의 부분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가 하는 점은 저에게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시각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기 뭐 일본의 연구사와 한국의 연구사를 비교를 하고 나서 의논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조선측의 군량공급문제에 대한 일본의 연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연구사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군량공급체제에 대해서는 中野等이라는 연구자 분이 논문을 쓰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제 능력부족이라서, 일본의 자료라는 것을 제대로 이용해서, 저는 일본 자료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해서는 특히 논평하는 것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계재한 주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직접 논평할 필요도 없다고. 그, 일본의 연구 말입니다. 일본군의 군량문제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러한 테마를 선택한 것이 좋았느냐 적당했느냐, 아니었나 하는 문제는 있어도, 적어도 조선측의 군량공급체제에 대해서 논술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측 군량공급문제에 관한 연구내용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좀 발표에서 빠졌으니까 반복하겠습니다만 조선측의 군량공급체제만을 테마로 삼은 것이 좋으냐 나쁘느냐 하는 의논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 연구는 군량공급체제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調達과 輸送 상황을 논술했음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이 용어, 군량공급체제라는 용어가 적당했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조달, 군량의 조달과 수송을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군량공급체제라는 말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용어문제는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역시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 평상시의 시스템과 그리고 전쟁시의 시스템이 어디가 다르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야 한다는, 정말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인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평상시의 조선의 군량공급체제라는 연구가 말

입니다, 제가 모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 정도 까지, 확실히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이번에 그 정도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기회에 혹시 평상시의 조선, 조선군의 군량공급체계에 대한, 한국측에 뭔가 좋은 연구가 있으면 부디 教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서 제가 다룬 것은 중앙정부 수준의 것이며 이와 아울러 朝鮮水軍, 이순신의 조선수군의 군량조달이라던가 義兵의 군량조달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발표 중에서 연구사 정리를 하면서 과제로서 두 가지를 제시한 중에, 저는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적인 역사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그곳에 써 있는 대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정된, 준비기간도 그렇고 보고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것까지 언급하라는 것은 역시 상당히 무리가 있구요, 이번에는 우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듯이 제가 제기한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그 시기를 한정해서 일단은 가능한 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원래 군량공급문제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연구가 아직,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 보았다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사료를 읽으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는 한 권의 연구서, 단행본 말입니다, 최저 책 하나는 쓸 수 있다고, 더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정부의 군량문제만이라도 책을 하나 쓸 수 있다고. 의병은 의병만으로 책을 하나 쓸 수 있다. 그 정도 앞으로 해명해 갈 과제가 많은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질문의 순서가 좀 반대가 돼서,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질문하신, 그 초기, 여기서 다룬 시기만으로 끝내버려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도 여기서 마칠 것인가, 더 후세까지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초기만이 아니라 저, 더 진행시켜 보고자 합니다.

**손승철** :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六反田**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 여기서 근거로 한, 저기, 정구복 선생님은 그, 실록

만 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보고라서, 저도 어딘가 주석에 썼던 것 같은데요, 선조실록 이외에도 중요한 사료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료로 앞으로는 이 기간에 관해서도 내용을 보충해 갈 생각입니다. 아, 용어문제가 있습니다만 저기, 하나하나 대답하면 길어지니까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인데, 遷都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은 근거가 된 사료에 어떻게 써 있었는지 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확실히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칭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번의 연구집회에서 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들었습니다만, 단 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전쟁의 명칭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적어도 처음 단계에서 일본측은 文祿慶長의 役,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따랐을 뿐입니다. 조선측의 문제를 다루는데 文祿慶長의 役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다소 개인적으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뭐 그런 문제는 여기서는 일단 두고, 일단 그, 제안하신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손승철 : 지금, 정구복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14분이 걸렸고요, 답변하는데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자의 권한으로 질문 5분, 답변 5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六反田 : 죄송합니다.

조광 :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안 넘겼지만,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 먼저 하겠습니다. 六反田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바로 이 초기시기를 다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군량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량에 대한 이해의 방향입니다. 선생님은 군량의 조달과 운송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조달과 운송외에 군량의 소비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량은 군대 �犒饋用, 군인들이

직접 먹는 용품만 아니라, 후기로 가자면 훈련도감 군인들의 급료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철의 馬糧까지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량이, 군량의 용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시대 구분의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초기 일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초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의 연구, 군량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기 구분이 먼저 되고, 그 시기의 특성에 대한 의식이 좀더 표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다루시는 시기는 전란 초기이기 때문에 명군의 경우에는 주된 식량이 있습니다. 乾糧으로 표현이 되지요. 후금군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전투에 임할 때 군인들은 15일치의 군량을 자기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군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또한 명의 수송 부대에 의한 식량 운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식량 문제가, 군량 문제가 그 후기와는 좀 차이가 나는 시기를 선생님께서는 연구해 주셨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문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石의 내용입니다. 이 군량의 단위를 석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석이라 하더라도 皮穀인지, 알곡인지에 따라 그 紿食力의 차이가 꽤 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畜穀인지 알곡인지지를 조금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米의 개념입니다. 近畿 以南地方의 미는 大米, 즉 쌀입니다. 아, 경기 이남지방. 그러나 평안도 지방의 미의 개념은 좁쌀입니다. 이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까지도 의식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좁쌀과 쌀의 급식력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량 계산상의 문제입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1.5升의 식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량으로는 대략 1980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이는 전투라는 중노동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한편, 명군에게 1升의 식량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는 기초 대사량 정도만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군량지급 문제에 대한 재해석 내지 재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馬糧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량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青草가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馬豆가 중요합니다. 콩입니다. 이 마두는 군량의 일부로써 군량과 대등하게 논의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뭐, 이상 몇 가지 지적에 대한 의견을 달았습니다.

손승철 : 가능하면 좀 단답식으로 그냥, 답변만 해주십시오.

六反田：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그, 군량의 消費處, 用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 생각에서는 조달과 수송이라는 점을 문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소비처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조선관군, 초기의 경우는 조선관군이 대상이며, 6월 십 며칠 이후에는 明軍을 지금대상으로 한 의논이라서, 나름대로 그런 형식으로 논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소비되었는지 하는 점도 시야에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의 문제인데요, 확실히 전체의 시기구분을 설정하고 나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김용건 씨가 말입니다, 이미 전체를 본,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제시했어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우선 순서대로 오로지 사료를 따라간다는 수법,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시기구분 문제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이 되면 저기, 시기구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보일 것이라는 초점에서 했는데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라면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 단 이 開戰初期를 다룬 것은 물론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데요, 명나라의 제가 다룬 시기라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明軍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도 李如松이 조선에 와서 이후의 문제는 集計의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초기의 문제는 거의 연구의 구멍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히 논술하자는 그러한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의 문제인데요, 껌질이 붙어 있나 없나 하는, 그 문제, 확실히 있고요, 저도 이 문제는 매우 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사료적인 한계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다 썼다. 白米라던가 造米라던가, 田米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사료에 껌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판단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좋은 사료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馬糧의 문제도 마찬가지라서, 적어도 제가 다룬 시기, 마량에 대해서 논의한, 의논한 기사는 별로 없어서, 제가 한 군데, 어느 사료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만, 마량문제를 의논한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이 시기는 말, 말의 먹이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습니다. 아, 그렇다 하기보다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저는 이번에 실록밖에 못 봤기 때문에, 실록 속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량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합니

다, 벌써 길어져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 그 군량의 계산에서 1升 5合, 1,980kcal라는 문제, 이것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군량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주둔 중과 군대가 진군 중과, 실제로 그, 전쟁에서 싸울때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문제에 자세한 분은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 군사관계는 정말 이번에 처음 다루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모색하면서 하고 있어서요, 부디 이 기회에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승철 :** 예, 그 아마 이제 또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을 텐데 나중에 시간이 활용하면, 우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구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잘 들었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의 비판과 고찰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논문 세 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자로 한국의 선행 연구를 모두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세 편 외에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학근, 또는 김홍의 박사 논문, 송양섭의 논문.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편만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선조실록의 사료들이 다른 논문들에서 이미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사료 인용에도 참신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전초기 군량 논의가 최초로 된 것이 사료 A를 들어서 선조 25년 5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선조실록을 보면 5월 6일에 이미 군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면 군량 초기에 집중해서 군량 공급 체제를 연구했다는 데에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구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서 양국간의 학설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주제, 또는 상호 이해와 인식의 심화를 제안하는 논지가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침략적인 성격이라든지, 또는 조선의 피해라든지 또는 전쟁의 영향 등에 관한 문제에 천착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六反田 :** 감사합니다. 저, 지금 목록을 받아서요, 이렇게 많군요. 저어, 저 말입니다,

저기, 한국측에서 만든, 정리한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여기서도 빠져 있다는 것 이니까 이쪽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어, 그리고 사료A 이전에도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쪽 본 줄을 알았는데요,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문제인데요, 확실히 이 위원회의主旨에서 생각해도 조금 한일 학회에서 의견 對峙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 연구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일본의 교과서인가요, 이 문제에 언급할 부분이 있지 않으나 하는 의견,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군량문제에 관해서 다룬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는 이 문제가 아직 일본에서는 연구된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연구된 바가 있다. 그러한 이유를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측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해갈 것인가, 물론 그것이 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만 해보자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루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趣旨부터 말해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측의 연구자세 중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본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과제가 되는 일이라고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취급했다는 것이고,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으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승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임진왜란의 연구사는 저희도 충실히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박선생님 간단하게 5분정도 이내에.

박재광 : 박재광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안할 부분하고 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앞서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연구 범위대상,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도 있고, 제 나름대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자세한 건 초행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戰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황의 문제를 구분을 해 가지고서 시기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조선군의 경우 개전초기 대웅전략 부재로 연패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이후 의병이라던가, 수군활동을 토대로 전열을 재정비했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군량 수급체제도 정비되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제1선의 지휘관들도 독자의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포함한 시기 구분을 행한다면 이 논문이 수정되어질 때 보다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개인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전의 날짜가 일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4월 13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투가 행해진 것은 4월 14일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7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선조 25년 5월 13일자의 실록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으로부터 당시 아산창의 조운 선단에 실려 있던 전세미가 1200석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곡미 전체의 규모를 생각하면 더 큰 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며, 기록의 기사는 일반적인 회로를 통해 그 정도의 양을 운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상단에 북상하는 일본군에 대한 준비를 위해 황해도·강원도의 조창곡을 활용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5월 2일에 한성이 함락하고 조선군이 퇴각할 때 일본군에 이용을 막기 위해 각지의 전세곡을 소각함으로써 보존이 곤란했기 때문에 문헌상의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六反田：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매우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기구분의 문제부터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구분은 전투의 상황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초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정리된 시기로써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분지은 것이며, 이것이 시기로써 설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하여 이여송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또한 크게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曆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A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아산창의 쌀을 1,2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뒤에 나오는 자료 L등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자료 A는 약간 일 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시 기적으로 보아 이 시기는 조운의 시기로서는 매우 늦은 시기로 대부분의 것은 한성에 부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때문에 1,200석이라는 것은 오히려 적습니다. 무리를 한다면 조운선 한 척에 실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1,000석부터 실고 있지요. 때문에 조운 선단이라는 용어도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뒤쪽의 자료에 유성룡 등이 언급하고 있는 배가 아마도 사료 A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등의 조창의 곡물을 정말로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입니다만, 이것은 꽤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의 창고에 몇 천석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것이 모두 이용되었는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곤란해집니다만, 어느 정도의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정부는 움직이고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며,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완벽한 사료를 찾아서 저의 논증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강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 두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손승철 : 한문종 선생님, 1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문종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六反田 선생의 발표에서는 한국측 연구자 세 명의 연구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지적받은 한계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던 점과 기준 연구와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六反田 : 저는 개개의 연구에 대해서 상세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지만, 다만 저는 전체를 통해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해 크게 두 개의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 중의 하나로써 여기에서는 매우 짧아서 중간 보고적이어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조금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 저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은 유감

스럽지만 실수로 논문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도 생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용서를 바랍니다.

손승철 : 토론은 정확하게 70분 행했습니다. 12시까지의 예정이었지만, 조금 늦어져 지금 12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 반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오전 중 수고하셨습니다(끝).